전민조 기증사진전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Photos say it all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민조 기증사진전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총괄	허정석(자료관리과장)
기획	이용석, 오승진
진행	정아현, 황성식
사진보정	신유섭
진행보조	안주영, 이민석
전시시공	㈜작품오늘
사진인화	포트폴리오샵
도록제작	㈜정우디피씨
발행인	김왕식(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발행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www.much.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02)3703-9200
발행일	2015년 11월 9일
디자인	(주)정우디피씨 02)2277-9541
발간등록번호	11-1371480-000101-01
ISBN	978-89-98443-96-2

©20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15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일러두기

- 이 책에 수록된 사진의 저작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사진가 전민조에게 있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전체 또는 부분 복사·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진 설명은 제목, 촬영장소, 촬영일 순입니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발간사

한 장의 사진이 수천마디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진은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수많은 말과 글들이 지켜내지 못한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진은 우리들의 삶의 기억이자 기록이 되고 기록이 쌓여 역사가 됩니다.

사진가 전민조는 2014년, 그의 사진이 우리 현대사를 비춰주는 사료와 기록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필름, 사용하던 카메라 등 약 30,000여 점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그의 사진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들의 모습에서부터 사건·사고 현장 그리고 서민의 일상에 이르기까지의 세상만사를 담고 있으며, 사진 한 장 한 장은 우리의 역사와 삶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민조 기증사진전–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는 기증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사진가 전민조의 사진 세계를 소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전과 사진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기자 전민조'에서는 사진기자로 30여 년간 활동하며 찍은 기자들의 일상과 신문사 편집국의 풍경, 보도사진들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담은 세상'에서는 다큐사진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담아낸 넓고, 각기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만난 사람들'은 정치인, 경제인, 예술가, 종교인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과 더불어 농부, 해녀, 노동자처럼 필부들의 모습도 담아냈습니다. 인간이 사회의 근간이면서 역사를 움직이는 원형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사진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전시와 사진집을 통해 렌즈 너머 세상을 그의 시선으로 담고 기록하며, 사진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였던 그의 사진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좀 더 다양한 주제와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많은 사진들이 폭넓게 공개되지 못한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시와 사진집으로 소개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은 단계적으로 디지털 변환과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널리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삶의 전부와 같은 사진을 기증해 주신 전민조 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번 전시와 도록 발간을 위해 수고한 자료관리과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5.11.9.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왕식

차 례

발간사 5

나는 왜 사진을 찍게 되었나 – 전민조 8

유머가 없던 시대의 유머 사진 – 이영준 124

작가소개 127

사진기자 전민조 12

최루탄 도시 14
옥상 취재 15
기다리는 사진기자 16
취재 경쟁 중인 사진기자 17
야근 기자 18
피곤한 기자 19
지면을 살피는 기자들 20
민주언론수호결의 22
백지광고신문 24
기자들의 시위 25
마지막 건배 26
법정에 선 영화배우 방성자 27
카메라가 잡은 소매치기 28
알몸 귀향 29
마산에 진입한 공수부대 30
탐험가 노영문·이재웅 31
눈치작전 32
불안한 소년 34
잃어버린 가족 35
이산가족찾기 36
미문화원 점거농성 37
대우 어패럴 시위 38
신민당 전당대회 39
억압받지않는 사회를 위하여 40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41
울고 있는 농부 42

그가 담은 세상 44

광주대단지 46
압구정동 47
잠실시영아파트 48
버스 정류장 49
약장수 50
근대화 51
청계고가도로 52
교통체증 53
버스 차장 54
도시는 만원 55
어려운 고향길 56
보행위반자 57
학원가 58
마지막 재산 59
강태공 60
당인리 발전소 61
등산 62
시골길 63
동행 64
춤추는 농부 65
농활 66
아낙네들 67
추수 68
우시장 69
사랑방 70
유세장 71
독도 72
독도 73
섬마을 어린이 74
연화도 75
조도 76
비바람 부는 날 77
소마도 78
사랑하도 79
오곡도 80
안녕 81

그가 만난 사람들 82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84
화가 남관 85
사진가 최민식 86
화가 천경자 87
소설가 이병주 88
학자 이어령 89
작곡가 길옥윤 90
피아노 연주자 서혜경 92
바이올린 연주자 정경화 93
작곡가 김동진 94
희극인 이주일 95
프로레슬러 김일 96
권투선수 홍수환 97
축구선수 차범근 98
야구선수 최동원 99
야구선수 박철순 100
기독교사회운동가 함석헌 101
성철 스님 102
김수환 추기경 103
라이벌 1 : 김대중·김영삼 104
라이벌 2 : 이병철·정주영 105
농부 106
농부의 가족 107
숯장수 108
해녀 109
여성광부 110
군밤장수 111
달구꾼 112
공사장 인부 113
기관사 114
교통경찰 115
치과의사 116
이발사 117
시계수리공 118
여공 119
상인 120
수감자 121
부모 122

나는 왜 사진을 찍게 되었나

어린 시절, 나는 사진보다는 그림을 더 좋아했다. 흰 종이만 보면 그림을 그려 주위에서는 화가가 되리라 기대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전국중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홍익대학 주최)에서 최고상을 받고 전국대회 특선을 7번 받는 바람에 홍익대학 미술대학 서양화과 서류전형에 1차 합격했다.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적록색약(赤綠色弱)'으로 판정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미술대학 입학이 좌절되면서 그 시간부터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이때는 어린 마음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해서 사람 만나기가 싫고 죽고만 싶었다. '내가 왜 색약인가?'하는 고통으로 1년 동안 방안에서 부모 말도 듣지 않고 꼼짝 않고 천장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것 같아서 어떤 탈출구를 찾고 싶었다. 미술대학을 나와야만 유명한 화가가 되고 음악대학을 나와야만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도 아닌 세상에, 해결도 되지 않는 고민에 휩싸여 운명만 탓하는 것이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마침 군 입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야말로 상처를 털어내고 다른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는 베트남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하고 싶어 주저하지 않고 바로 베트남 파병에 지원했다. 말단소대 소총수로 내려가서 소대장(신세훈, 시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나의 의지보다는 타의로 움직이는 지독한 병영생활이지만, 앞으로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하고 어떤 훈련도 참아냈다. 어느 날 베트콩이 출현했다 해서 총알이 튀는 전투현장에 동원되었다가 우연히 총 대신 여러 대의 카메라만 목에 걸고 땀범벅이 되어 사진을 찍고 있는 외국 전쟁사진가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총도 휴대하지 않고 오직 카메라만 메고 용감하게 사진을 찍는 그들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사명감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면서 그들의 직업정신에 충격을 받았다. 이때 나의 눈에 비친 '전쟁사진가'는 절망의 어두운 터널에 계속 갇혀있는 나를 흔들어 깨웠다. 그림이나 사진이나 빛을 다루는 작업은 비슷해서 몸에 휴대하고 다니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카메라가 더 매혹적으로 보였다. 또한 '그림과 글보다는 사진이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케치를 아무리 천재적으로 잘하더라도 이미지를 압축시키는 사진 앞에서는 맥을 못출 것 같았다. 그림에 미련을 두기보다는 사진으로 한번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결심이 섰다. 제대 후 사진의 길을 찾고 있는 순간,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반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동창생 김생수(상업사진가)를 거리에서 만나 서라벌예술대학에 사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이경모(여순반란을 취재한 보도사진가)선생님은 '왜 사진을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다른 학생들은 사진철학이 없는 말만 하고 있는데 나는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은 글로 세상을 이야기하던 문학시대였지만, 앞으로 사회전반에 이미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영상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사진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것 같아 합격을 예상했는데 생각대로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모든 삶이 카메라와 함께 세상과 호흡하는 시간으로 변화하였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모두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록하자'는 정신으로 미치광이처럼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벽에 걸어놓는 아름다운 사진보다, 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찍어도 역사를 말해주는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다.

자연은 변하지 않지만 도시와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의 눈에 비치는 한국사회는 사진의 보고(寶庫) 같았다. 당시 사회는 마치 지각변동처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모하면서 초가집은 없어지고 도시계획에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모든 것이 사진거리였다. 초급대학 2년의 짧은 기간 동안의 수상경력(전국대학생 사진콘테스트 최고상, 국전입선 2점, 동아일보사진콘테스트 입상, 경기도 상공미술전 우수상)을 본 이경모 선생님의 추천으로 농협중앙회에 서류전형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농협은 2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했다. 봉급과 시간은 많았으나 혈기왕성한 서른 살 나이에 회장 접견사진과 평범한 행사사진을 찍는 안락한 생활은 나에게 지겨운 일이었다. 체력과 의욕이 넘치는 젊은 시절은 잠깐인데 안정된 직장보다 약간 불편한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열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넓은 무대를 찾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본 백형인(전 한국일보편집국 사진부) 부장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 후로 세상을 향해 사진을 찍는 일이 너무도 즐거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찍었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했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다. 당시 통금이 있어서 걸핏하면 회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일했는데도 지치지 않았고, 세상에 이렇게 신나는 직업이 있는가 싶을 정도였다.

나는 데스크가 어떤 힘든 취재를 내보내도 정말 즐겁게 일했다. 취재기자의 정보에 의해서 찍는 사진보다도 영상시대에 사진이 특종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어느 날 경인선 통근을 하면서 보니 열차소매치기들이 들끓었다. 이들의 범죄를 사진으로 찍어서 소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소매치기를 따라다니면서 한 달 동안을 찍었다. 현장을 찍은 사진을 증거로 강력반 경찰들이 일당들을 체포하고 신문 사회면 톱으로 사진을 장식하기도 했다. 이때 한국일보에서 정범태 선배를 만나게 되어 취재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 선배의 취재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다. 한국일보 사진부에 오래 근무하려고 했는데 한국일보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동아일보로 옮겨간 성윤경(동아일보편집국 사진부) 선배가 함께 일하자고 적극 권유하는 바람에 동아일보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동아일보 사진기자 시절부터는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랬는지 '사진 한 장을 위해서는 지구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사진에 몰두하는 바람에 아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짜증을 많이 냈다. 결혼을 했으면서도 총각처럼 가정에 신경 쓰지 않고 사진 찍는 일에 매달렸으니 내가 생각해도 딱한 일이었다. 이때 나와 비슷하게 모험을 좋아하는 김종완(전 동아일보편집국 사회부)기자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김기자와 함께 회사가 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요트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취재와 고대 산악부와 동행하는 알래스카 머킨리봉 원정취재, 설악산 산양을 찍기 위해 두 달간 산속을 헤매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인생은 짧은데 언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다. 책으로 읽은 세상보다도 큰 세상을 알게 해준 언론사 생활과 다양한 직업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시간들은 나에게 큰 경험이 되었고, 미술대학 실패 후 절망의 시간들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1980년 이전까지 당시 언론은 땀 흘려 사진을 찍어도 촬영자의 이름도 없이 사진만 지면에 게재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항상 사진은 뒷전이고 기사가 우선이었다. 그러나 실망은 하지 않았다. '촬영자의 혼(魂)이 담긴 역사적인 사진은

울고 있는 농부 Farmer in tears

비바람 부는 날 A day of a rainst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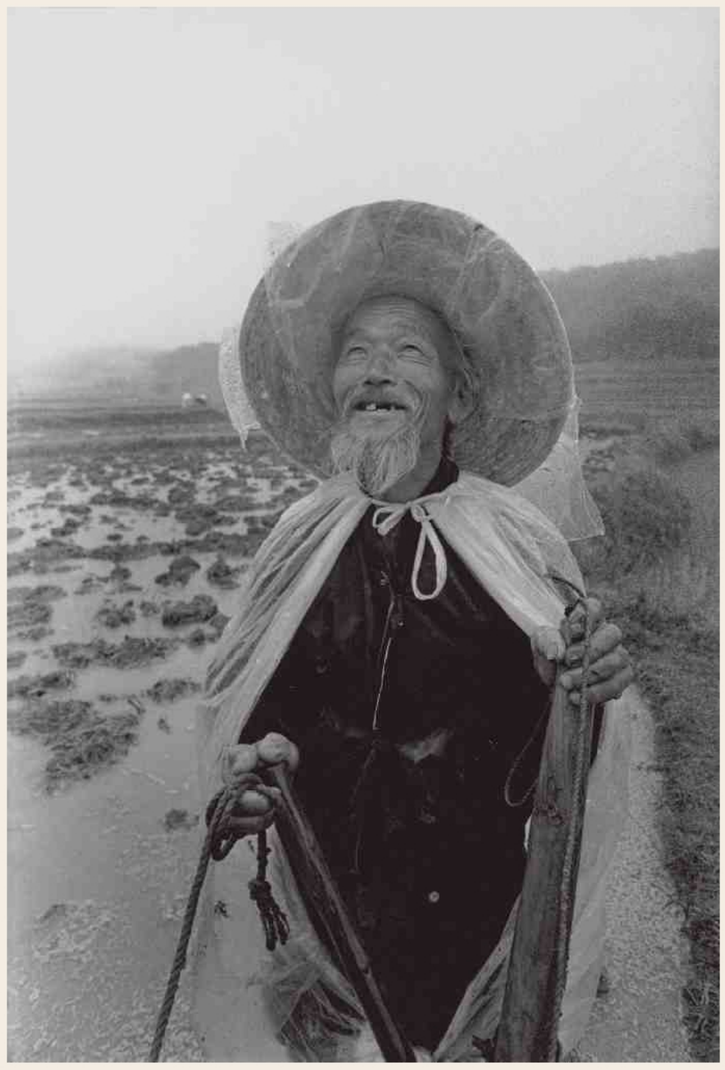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말을 할 것이다'는 생각을 했다. 그동안 찍은 사진 중에 그 생각을 대변해준 사진 3장이 있다.

첫째는 〈울고 있는 농부〉사진이다. 여의도에서 연중무휴로 강성노조의 시위데모가 한창일 때 권리주장을 하는 근로자의 상징적인 인물을 찾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어느 청년이 국회의사당 진입을 거부하는 경찰에게 맞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국회를 배경으로 리얼하게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이 「신동아」 잡지에 게재되자 미국 미조리대학의 어느 한국인 교수가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한 장의 사진에 한국의 사회현실을 압축시킨 결정적인 사진'이라고 격찬하면서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현실을 알리고 싶으니 사진 한 장을 꼭 보내 달라는 사연이었다. 또한 언론사 퇴사(1998)후 이 사진을 포함한 '서울'이라는 테마의 작은 전시회를 했는데 방명록의 글들이 모두 이 사진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어떤 대학생은 이 사진을 보고 사진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다.

둘째는 〈비바람 부는 날〉사진이다. 인사동에서 '섬' 전시회를 하던 시기였는데 어느 중년의 여성 관람객이 섬 사진을 주목하면서 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는 모습을 목격했다. 전남 신안 앞바다의 하태도 해안가에 불쏘시개용 나무를 널어놓았다가 비바람이 불자 어머니의 재촉으로 여자 어린이 3명이 땔감을 머리에 이고 움직이는 사진이었다. '작가분이 어느 분이냐'고 물어왔다. 그는 '나도 하태도라는 섬 출신인데, 어린 시절 이 사진의 모습처럼 살았다. 이 사진을 보면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했다.

마지막은 〈농부〉라는 사진이다. '한국인의 초상'이라는 전시회(2007, 한미사진미술관) 때 걸린 사진으로 다른 어느 직업보다 '농부'가 대단한 직업 같아서 다른 사진보다 농부 얼굴을 약간 크게 확대해서 가장 좋은 벽에 걸어놓았다. 여름휴가 때 전북 남원 풍산면 대산리를 지나다가 찍은 사진이었다.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마을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깨에 쟁기를 메고 소를 끌고 나오는 농부를 발견하고 버스에서 내려 논두렁에 뛰어들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부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 찾았다, 이 사람이다'할 정도로 감동을 받은 노인이었다. 내리는 빗속에서 농부는 비닐로 몸을 감고 소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비닐로 감싸고 움직이고 있었다. 농부의 손은 얼마나 일을 했으면 그 지경이 되었는지 온전한 손톱 하나 없이 온통 뭉그러져 있었다. 내가 비를 맞으며 사진을 찍기 위해 앉다 서다를 반복하자 그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미소를 띠고 웃었다. 그 표정은 어느 종교인보다 온화하고 거룩한 성인(聖人)의 풍모였다. 이 농부 사진을 보고 중년의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시회에서 특히 농부 사진에 감동을 받았다. 농부의 이미지가 집에 올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 처와 함께 두 번씩이나 전시장을 찾았다. 본인보다도 처가 더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글썽이는 일이 벌어져 꼭 사진을 구입하고 싶다'는 사연이었다. 감동적인 사진은 작가가 감동하여 사진을 찍으면 감동이 작품에 묻어 나오는 것 같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숨소리까지 찍으려고 손이 아프도록 다가가서 찍은 사진은 시간이 흘러도 생명체처럼 살아서 말을 해주는 것 같았다.



농부 Farmer

그렇게 사진과 함께 실수투성이로 시간을 보내다 눈 깜짝할 사이에 회갑의 나이를 훌쩍 넘고 말았다.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부터 인생은 시한부라는 생각은 맞는 말이었다. 바라보는 대상이 항상 영원할 것 같지만 도시와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내가 신체적 결함도 없이 정상적으로 미술대학에 들어갔다면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평범한 인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사진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나에게 사진은 분명히 자아(自我)를 바꾸어 놓은 값진 경험이었다. 군대를 통해 전쟁까지 경험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느껴보려 했던 바탕은 결국 정적(靜的)인 그림보다 동적(動的)인 사진을 만나 나의 소심했던 성격을 밝게 만들어주었다.

2013년 겨울, 이제는 별일이 없겠지 하면서 사진의 끈은 놓지 않고 주위를 돌아보며 편안하게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다. 나이도 먹어가고 언젠가는 찍어 놓은 필름과 사진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던 차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사진을 소장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인연으로 지금의 사진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다. 나의 기록에 대하여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2015년 가을
전민조

기자는 때때로 모험과 도박을 해야한다.

기자가 모험심이 없거나 위험을 피하려 한다면,

그는 기자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뿐더러

독자들에게도 생명력 없는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사진기자는 사진으로 뉴스를 전달한다.

보도사진이라고 찍었는데 독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관찰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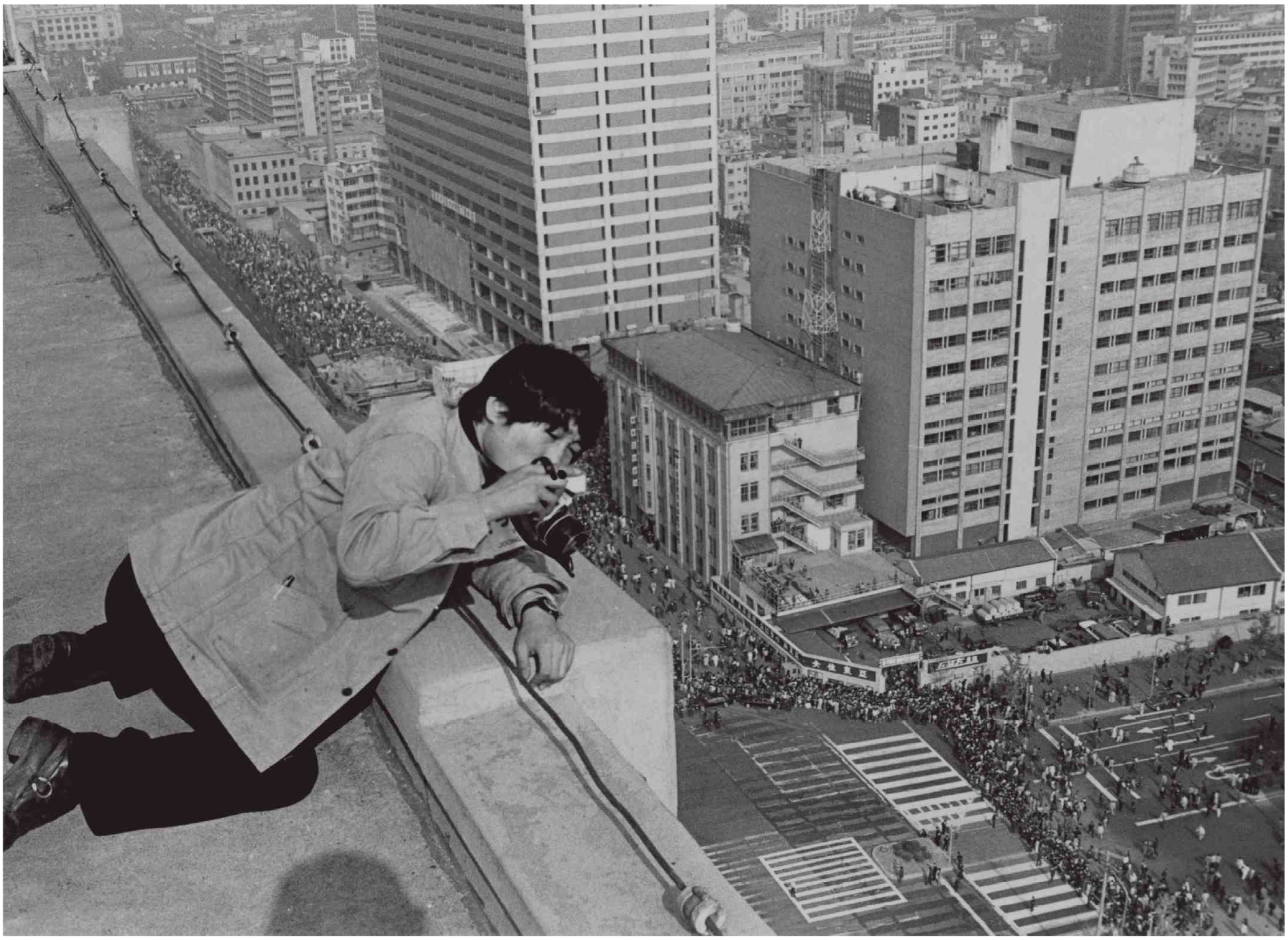
글·전민조

사진기자

전 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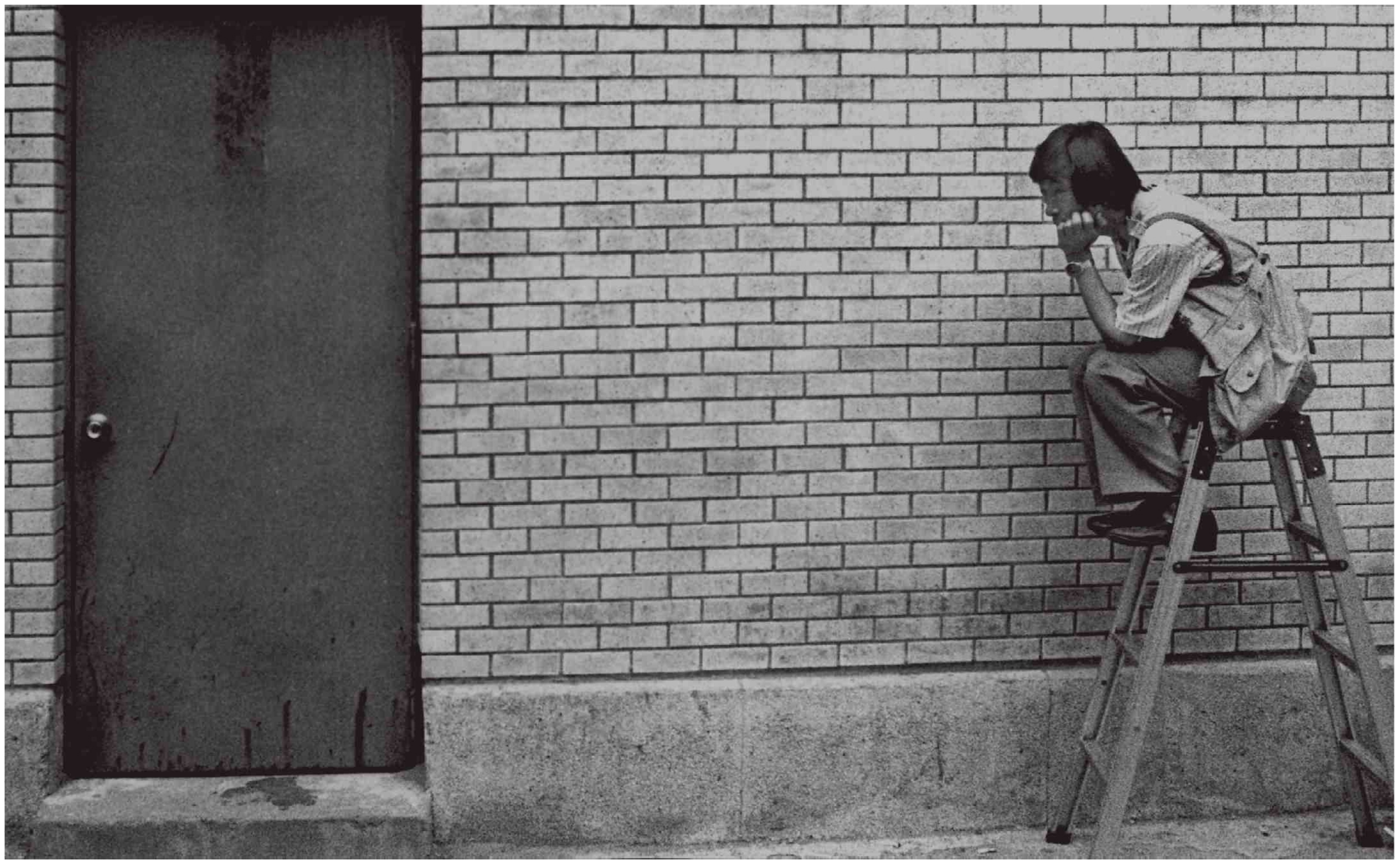
Photojournalist Jun Mincho

최루탄 도시
City attacked with tear gas
인천 주안 1987.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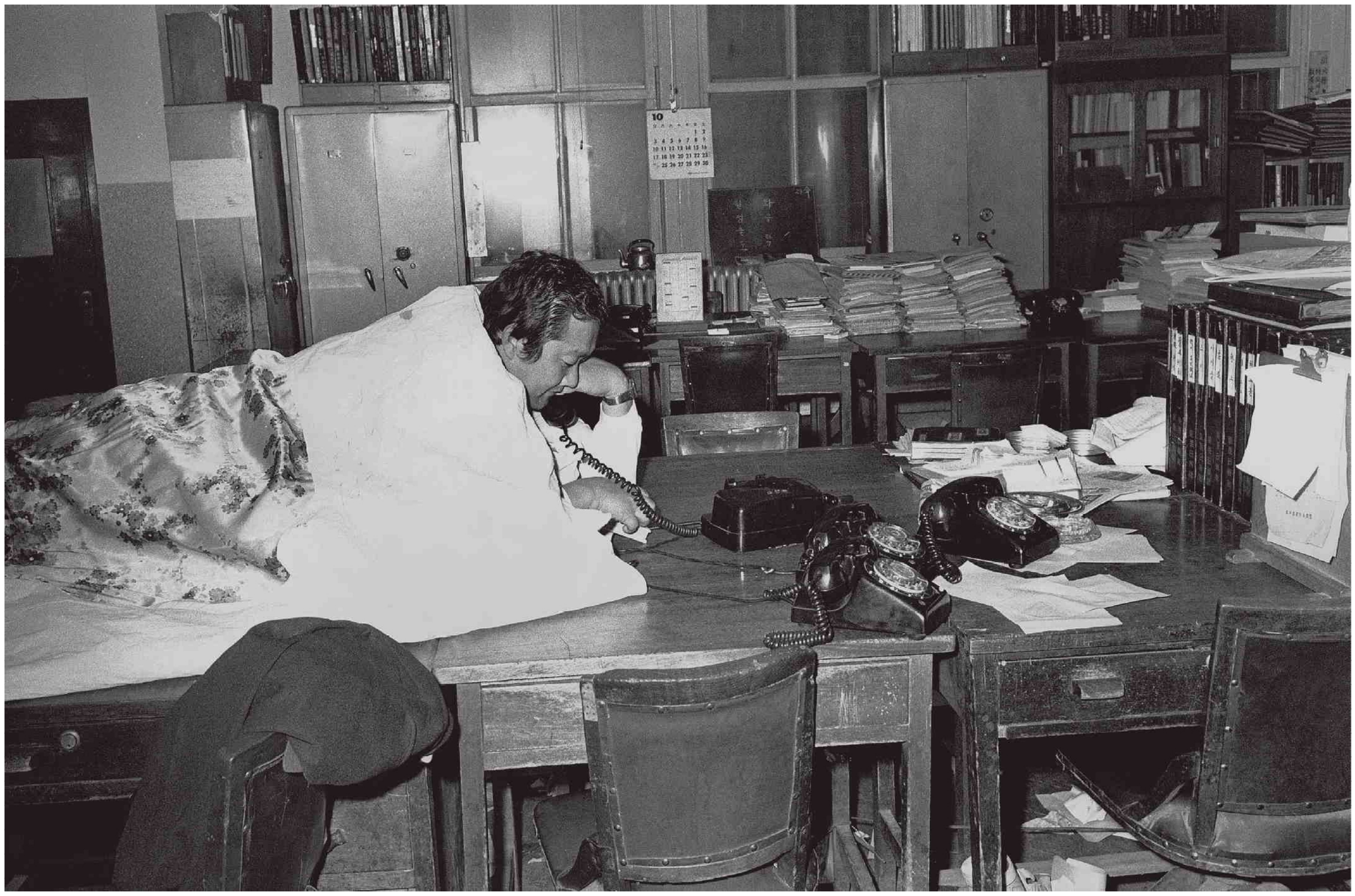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으로 광화문 부근의 교통이 완전히 통제되었다. 최재영(중앙일보 편집국 사진부)기자가 거창한 장례행렬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코리아나 호텔 옥상에 엎드려 사진을 찍고 있다.

옥상 취재
Reporting on a rooftop
서울 광화문 1979.11.03.



기다리는 사진기자
Waiting photojournalist
서울 형사지법대법정(서소문) 1982.07.07.

취재 경쟁 중인 사진기자
Photojournalists competing in coverage
서울 가회동 1980.02.25.



야근 기자
Journalist working late
서울 동아일보편집국 1977.01.14.

기자는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다.
기사를 잘 쓰고 사진을 잘 찍으려면 남보다 더 뛰고 땀을 흘려야 한다.
기자는 24시간 뉴스를 찾아 취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심신이 고달프다.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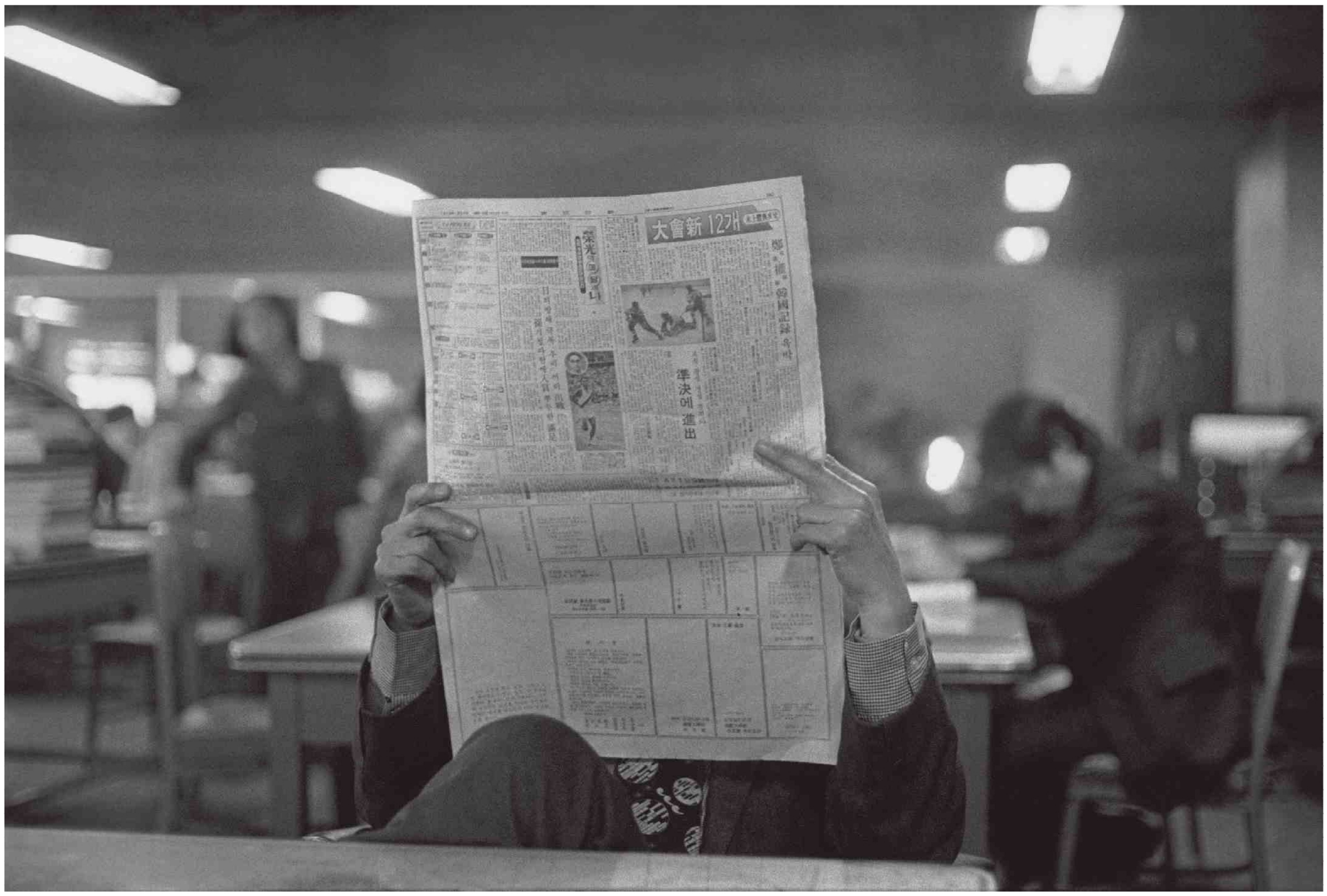
그리고 몸이 튼튼해야 한다. 건강하지 못하면 기자라는 직업을 감당할 수 없다. 누군가가 기자는 육체노동자인가 정신노동자인가를 묻는다면 양쪽 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기자가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일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피곤한 기자
Journalist feeling tired
서울 동아일보편집국 1983.08.14.

지면을 살피는 기자들
Journalists scanning through the paper
서울 한국일보사 1974.05.17.

1970년대 초 신문과 방송 등에서는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정치적 억압이 빈번히 일어났다. 1974년 10월 22일, 중앙정보부가 월남문제 해설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일보 사장과 편집국장을 연행해가자 기자들은 이틀째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130여명의 기자들은 24일 저녁 신문 제작 거부를 결의하였으며, 25일 새벽 '민주언론 수호를 위한 결의문'과 4개 항의 행동지침을 채택하였다.

민주언론수호결의
Resolution to protect the democratic press
서울 한국일보사 1974.10.25.



백지광고신문
Newspaper with blank advertising section
서울 한국일보사 1975.01.23.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은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수호대회'를 열었다. 이에 정권은 주요 광고주들을 압박하여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강요하였고 결국 동아일보는 12월 26일부터 주요 광고없이 그 자리를 백지로 내보내게 되었다. 한국일보 기자가 백지광고가 실린 동아일보 신문을 펼쳐보고 있다.

기자들의 시위
Protest by journalists
서울 KBS 앞 1990.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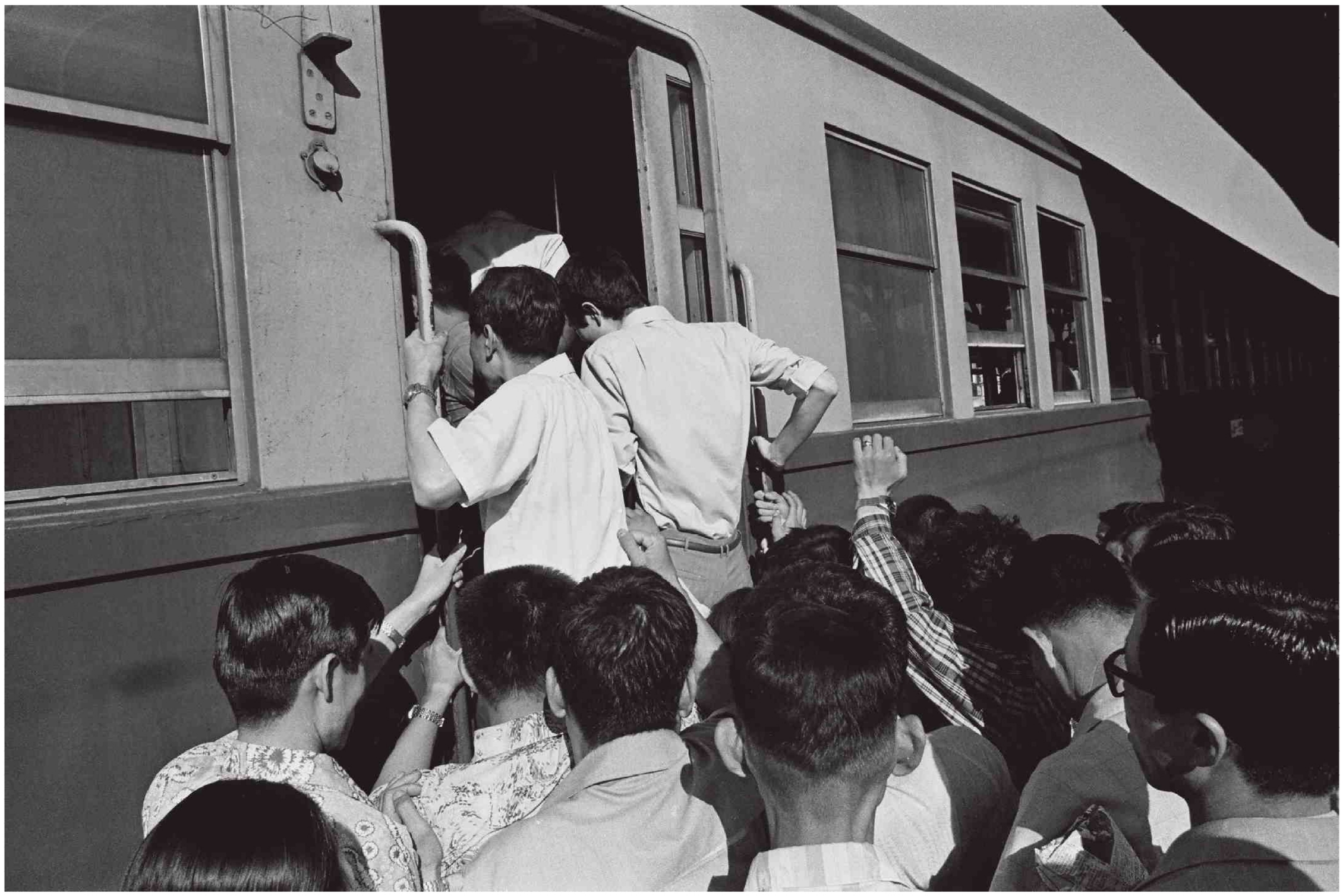
마지막 건배
The last toast
서울 1972.02.01.

뚜렷한 목적없이 찍은 가벼운 기념사진이라해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인 사진이 될때가 있다. 퇴근하는 길에 선배가 어느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히말라야 마나슬루(해발 8,150m)에 도전하는 한국 등반대의 결단식을 한 장 찍어두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날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출발한 한국 등반대는 2개월 후(4월 10일) 마나슬루 6,500m 지점에서 눈사태로 인해 15명(한국인 대원 4명과 셀퍼 11명)이 희생되는 참변을 당하게 되었다.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 필름은 사고 직후 신문1면을 장식하는 귀중한 사진이 되었다. 이 중 김호섭 등 4명이 사망하였다.

도둑이 숨어들었다가 주인이 쏜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도둑에게 총을 쏜 사람이 영화배우 방성자라 해서 세상이 떠들썩했다. 그러나 보름만에 방양이 함께 있다가 총을 쏜 재벌 2세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벌의 아들과 여배우의 애정행각이 세간의 화젯거리가 되었다. 재판정에 선 그녀는 피고라기보다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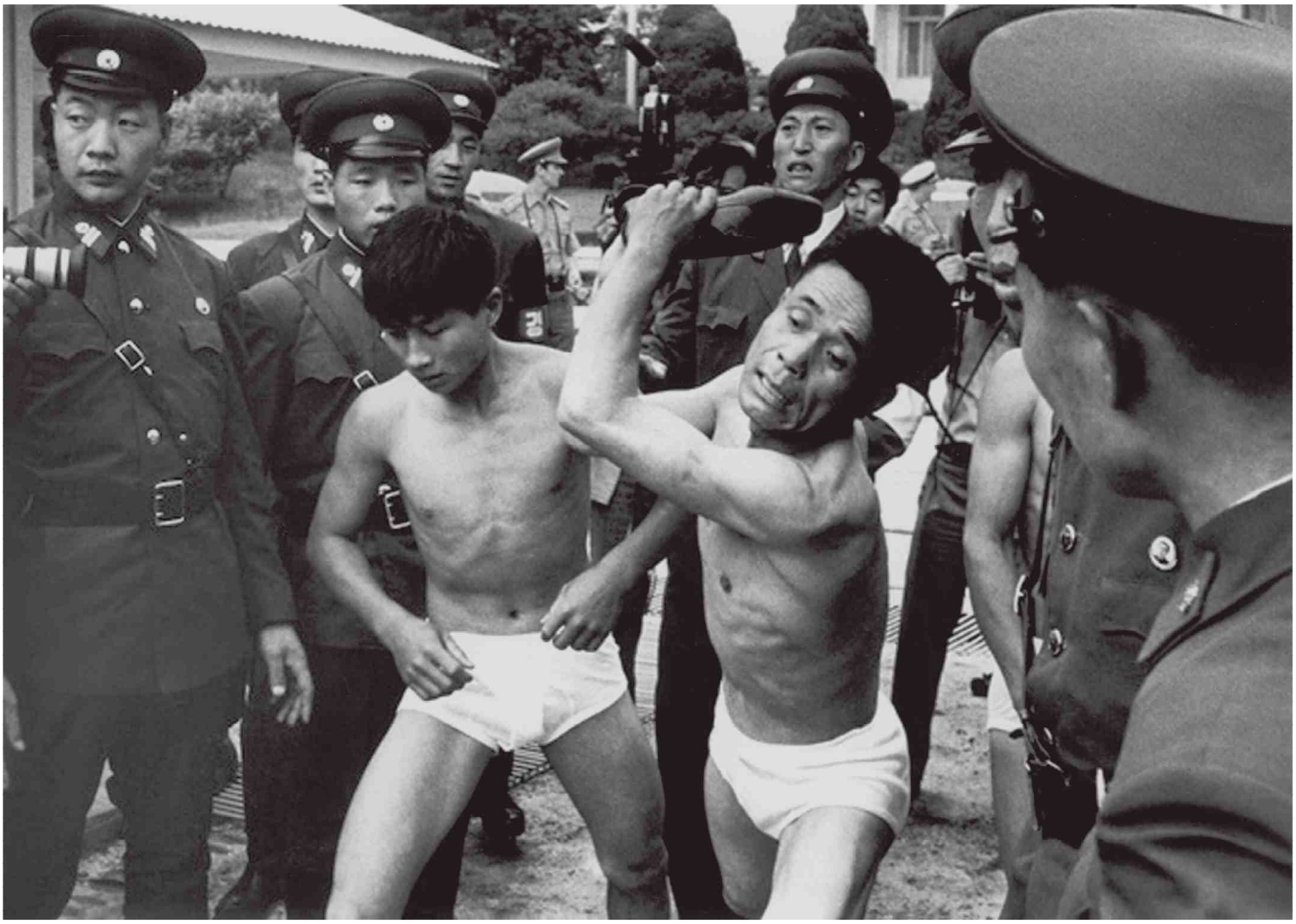
법정에 선 영화배우 방성자
Actress Bang Seongja, standing before the court
서울 형사지법대법정(서소문) 1972.06.14.



카메라가 잡은 소매치기
Pickpocket caught by camera
동인천역 1972.07.

1960~70년대 경인선 열차는 무법천지였다. 특히 치기배들이 열차를 무대로 활개를 치고 있었다. 당시 나는 인천에서 서울로 열차통근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눈에 비친 소매치기 현장은 무모하지만 '카메라를 무기로 열차 승객들을 조롱하는 악당들을 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소매치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이라서 증거가 없으면 체포하기가 어려운 범죄지만 현장을 사진으로 남긴다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것 같았다.

몇 년간 통근해보니 소매치기들을 금방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다가 동인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에 소매치기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결정적 사진 2장을 렌즈에 담아냈다. 소매치기 인물과 현장 사진을 결정적인 증거로 서울시경 단속반 경찰과 함께 일당 검거에 나서 일거에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관련 기사는 1972년 7월 25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톱으로 나갔는데, 촬영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독자 제보'로 게재되었다. 그 이유는 촬영자가 경인선 열차로 통근하고 있어, 혹시 얼굴과 신분이 밝혀지면 보복을 당할까 걱정한 사진 부장의 배려였다.



백령도에서 우리 해군 함정과 충돌, 침몰한 북한 배의 선원 4명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송환되기 전, 갑자기 알몸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그들은 몸에 걸친 신사복, 와이셔츠, 손목시계, 구두, 양말 등을 벗어서 팽개치고 팬티만 입은 채 괴성을 지르며 북으로 올라갔다. 휴전선을 가른 것은 그들이 아니지만, 그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동포애도, 인도주의도 온전히 간직한 채 돌아갈 수 없는 슬픈 귀향길이었다.

알몸 귀향
Returning home with an empty pocket
판문점 1978.07.03.

마산에 진입한 공수부대
Airborne troops entering Masan
경남 마산 세무서 앞 1979.10.20.

야당 총재 김영삼의 제명으로 촉발된 부마 민주화 운동이 격렬해지자 정부는 급기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공수부대 병사들은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기만 해도 무조건 달려들어 방망이로 때리고 발길로 짓밟았다. 광란의 현장을 눈으로만 보며 필름에 담지 못하니 너무 답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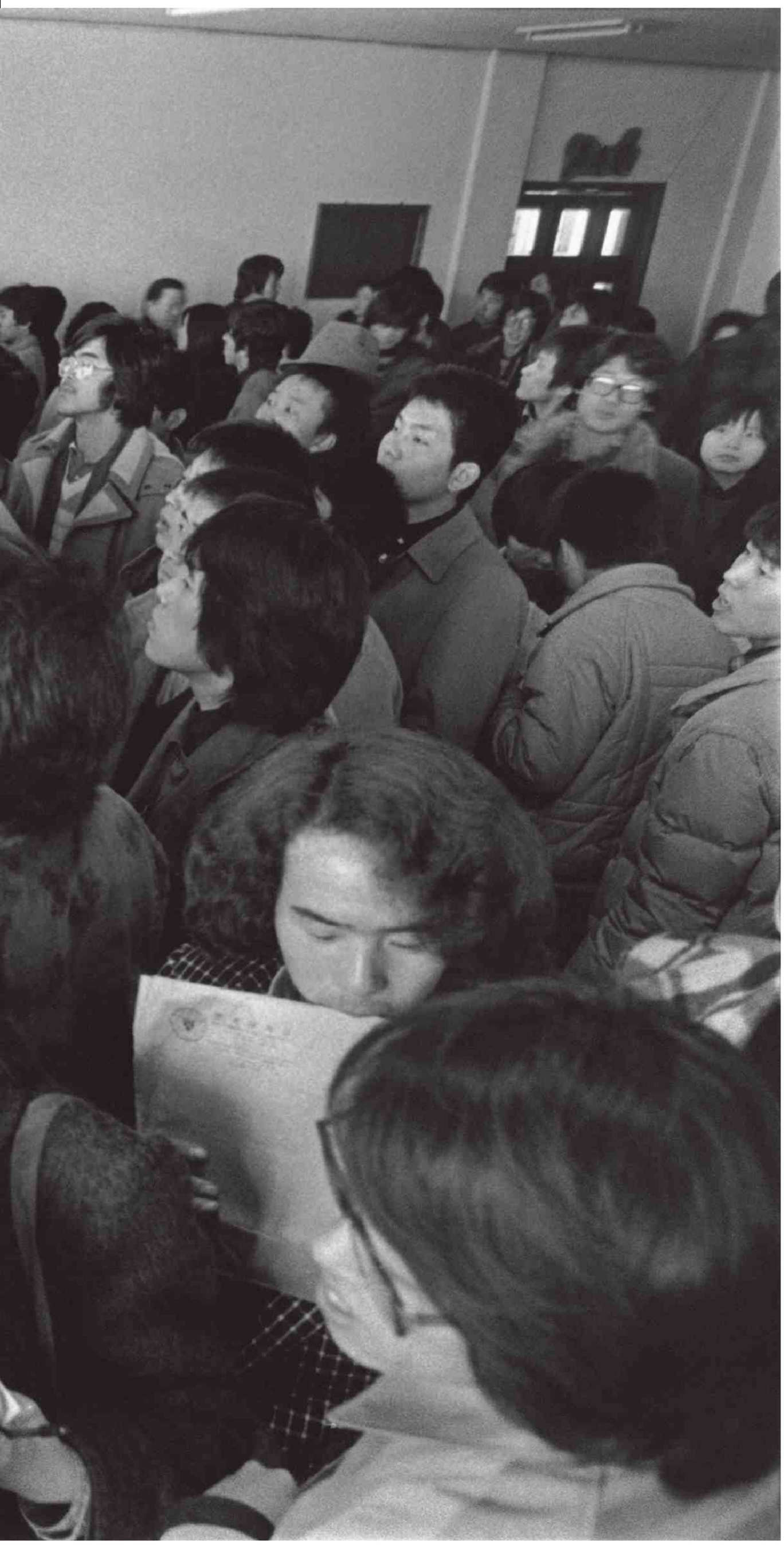
함께 내려간 동료에게 "무작정 플래시를 터뜨려 한 장 찍고 도망치자"고 했더니, 동료는 "만약 사진을 찍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같이 죽을 수도 있다"며 카메라끈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다. 어쨌든 사진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남았다.

탐험가 노영문·이재웅
Explorers Noh Youngmoon and Lee Jaewoong
미국 LA 1980.0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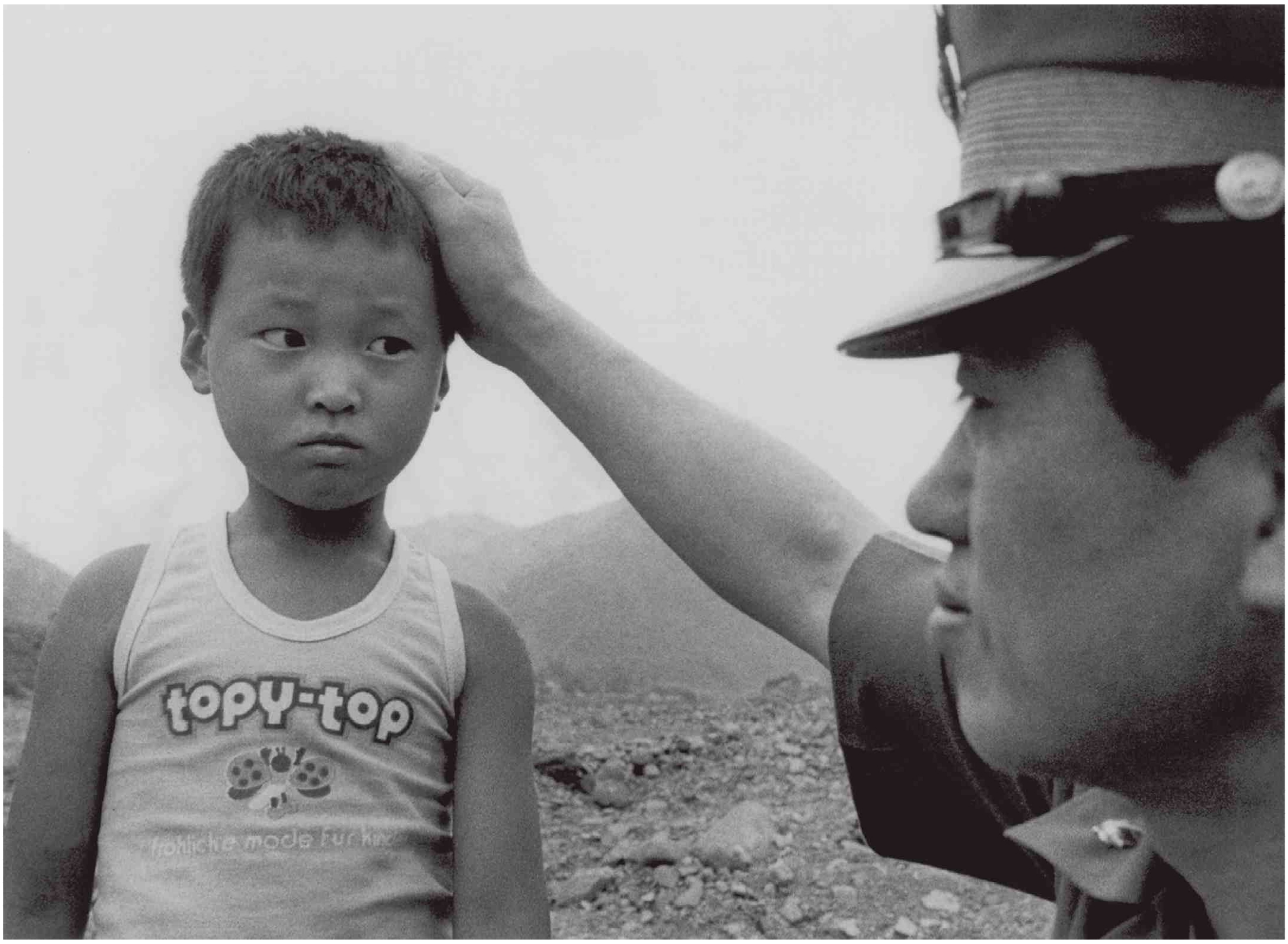
1980년 8월 6일 오전 11시 10분(한국시간), 요트로 태평양 횡단에 성공하여 미국 로스엔젤레스 산타모니카 남쪽 머리나 델레이 항구에 무사 도착한 노영문(28)과 이재웅(28)의 모습이다. 이들은 1980년 5월 23일 오후 3시 울산 현대조선소 제3도크를 출발하여 로스앤젤레스까지 12,000km를 75일 만에 완주하였다.

고교 동창생인 이 둘은 대양횡단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노영문은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공부하고 요트회사에서 요트 제작 및 기술 개발의 일선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숙원을 이룰 계기를 만나는데, 미국 요트수입회사(NAPPCO)로부터 2만 달러에 주문 받은 요트를 태평양 횡단 항해를 통해 직접 인도해야한다는 계약조건이었다. '파랑새호'라 명명한 요트 카리크(KALIK) 33호는 1978년 노영문이 근무하는 경일요트산업이 창설된 후 처음 시험제작한 6인승 요트로, 무게 4.8t, 길이 10m, 너비 3.32m에 20마력 엔진을 장착한 크루저 요트였다.

약 2년간의 대양횡단 준비로 함께 나선 이들은 폭풍 속에 제노아세일(보조 돛) 손상을 입기도 하고 주무전기 고장으로 20일 이상 교신이 두절되기도 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횡단에 성공하였다. 이 횡단은 동아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는데, 전민조는 임시 취재반으로 참여하여 영광의 순간을 사진과 기사로 담을 수 있었다.



눈치작전
Wait-and-see strategy
서울 연세대 1981.01.13.



새로 부임한 경찰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지만 아이는 겁을 먹은 표정이다. 49일 전 한 경찰관의 총기난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1982년 4월 25일 밤, 경남 의령군 궁유면에서 우범곤이라는 경찰관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하룻밤 새 56명을 살해하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날 밤 사진 속 어린이의 집에서는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아낙네들은 음식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의 문상이 이어지고 있던 시간에 우 순경이 나타나 조의금을 내놓고 술까지 얻어먹은 뒤 갑자기 총질을 해서 그 집에서만 12명이 죽었다. 공포의 아수라장에서 아이는 재빨리 뒷간에 숨어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고로 졸지에 형과 동생을 잃어 6대 독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생존한 아이는 비극의 밤을 회상하면서 "아저씨가 쏘는 총에서 불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불안한 소년
Boy feeling nervous
경남 의령 1982.06.14.

잃어버린 가족
Lost families
경남 의령 1982.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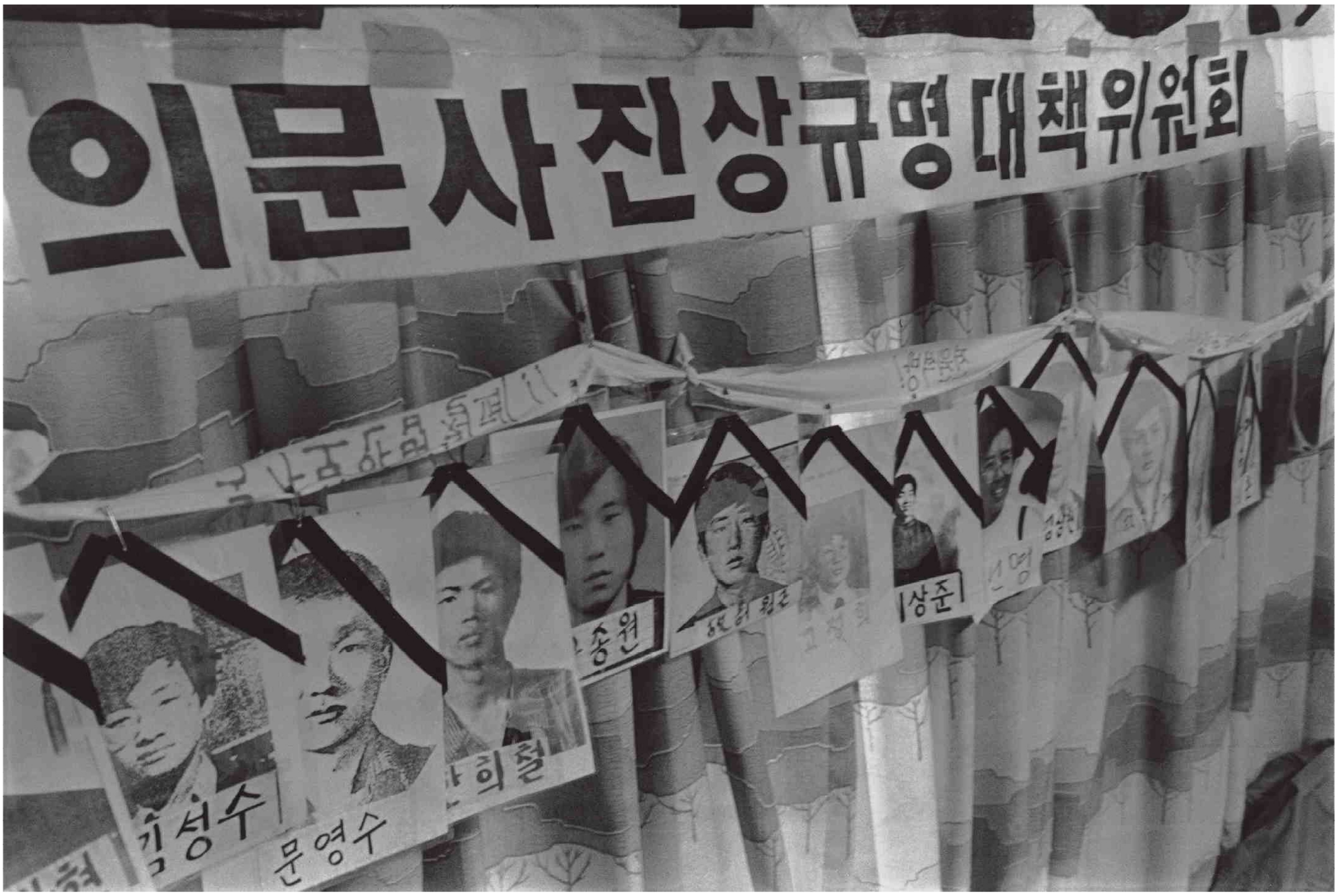
찾을사람 (공통)
찾을사람 응순자
찾을사람 황 이분 전화 46-0871
찾을사람 황 정희
찾을사람 황 정희
찾을사람 황 정희

미문화원 점거농성
Stay-in strike in the U.S. Cultural Center
서울 미문화원 1985.05.23.

대우 어패럴 시위
Protest at Daewoo Apparel
서울 구로공단 1985.06.26.

신민당 전당대회
New democratic party convention
서울 세종문화회관 1985.08.01.

억압받지않는 사회를 위하여
For a society not oppressed
서울 광교 1987.



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Presidential Truth Commission on Suspicious Deaths
서울 기독교회관 1989.02.09.

2315
2315
2315
2315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앞에서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축산업협동조합원 5백여 명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호소하다 경찰과 충돌, 웃옷을 다 찢기고 짓밟히다 일어난 청년은 "나를 때린 폭력경찰은 즉각 나와서 사과하라"라고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끝내 아무 반응이 없었다.
민의의 전당을 철벽처럼 막아서며 국민들의 접근을 한 발자국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찰 앞에서 청년의 외침은 빗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져 버렸다.

울고 있는 농부
Farmer in tears
서울 여의도 1988.07.18.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사진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가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사진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진가들은 단순히 자신의 직업적인 의무감이나 기술자의 입장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지성과 감성으로 역사를 통찰하는 독창적인 개성과 사물을 판단하는 작가적 안목으로 자신의 내면의 진실을 시각화하려는 사진가들이다.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증언하겠다는 작가의 눈이 없었다면, 귀중한 한 장 한 장의 역사적 사진은 전시회와 사진집으로 햇빛 가운데 증언될 수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글 · 유홍종

그가 담은 세상

The world taken by his camera

광주대단지
Gwangju Housing Complex
경기 성남 1971.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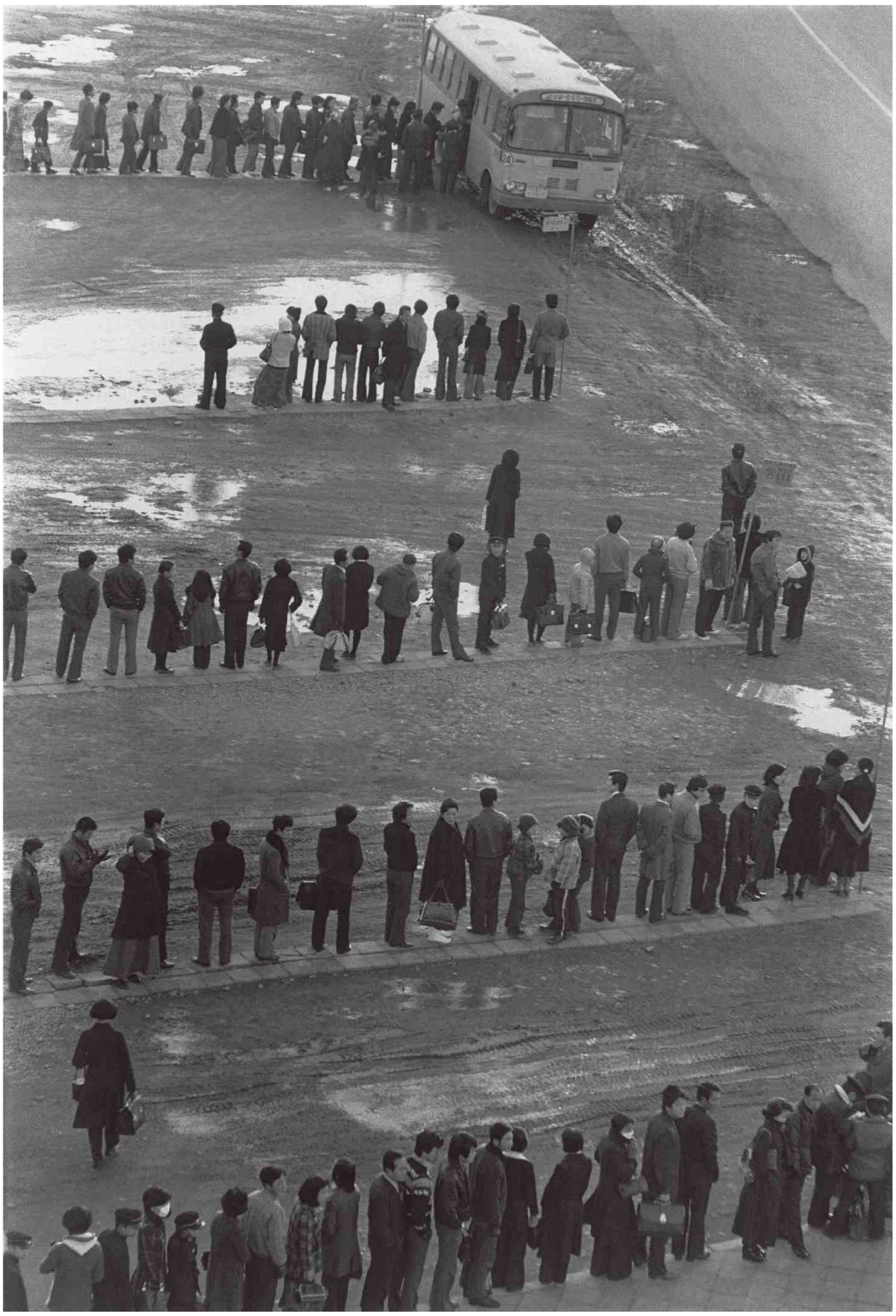
1960년대 서울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판잣집과 무허가 건물 등이 난립하면서 도시빈민 문제가 대두되었다. 서울시는 하천변, 산비탈, 철로변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무허가 건물 등을 철거하면서, 철거민들을 서울 외곽 수도권에 집단 이주시켰다. '광주대단지'는 경기 광주군 중부면(지금의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에 10㎢(300만 평) 규모로 철거민 50만 명을 수용, 정착시킬 대주택단지로 계획되었다.
집과 일자리를 갖는다는 희망에 부풀어 철거민들이 몰려들었으나, 택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거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야산 중턱 가수용지(假收容地)에 천막을 치고 택지가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1971년 8월 무렵, '광주대단지'에는 철거민 10만여 명(2만1372가구), 전매입주자 1만4000여 명(6344가구), 기타 전입자 1만3000여 명(2950여 가구)을 포함해 총 15만~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대한 천막촌을 이루어 살았다고 한다. 이 천막촌은 상하수도, 전기시설은 고사하고 택지조차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아 언덕배기에 다닥다닥 붙은 천막들에서 나오는 오물로 악취가 넘쳤다. 빈곤과 범죄가 들끓는 그야말로 슬럼 중의 슬럼이었다.

서울 강남 개발의 급성장은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지금의 갤러리아백화점 부근을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아파트를 배경으로 소를 끌고 밭갈이하는 농부를 목격하고 그림이다 싶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접근했다. 현대적인 고층아파트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밭갈이하는 농부는 압구정동의 상징적인 이미지였다. 농부는 압구정동의 원주민으로 넓은 땅을 고가로 팔고 올해가 마지막 농사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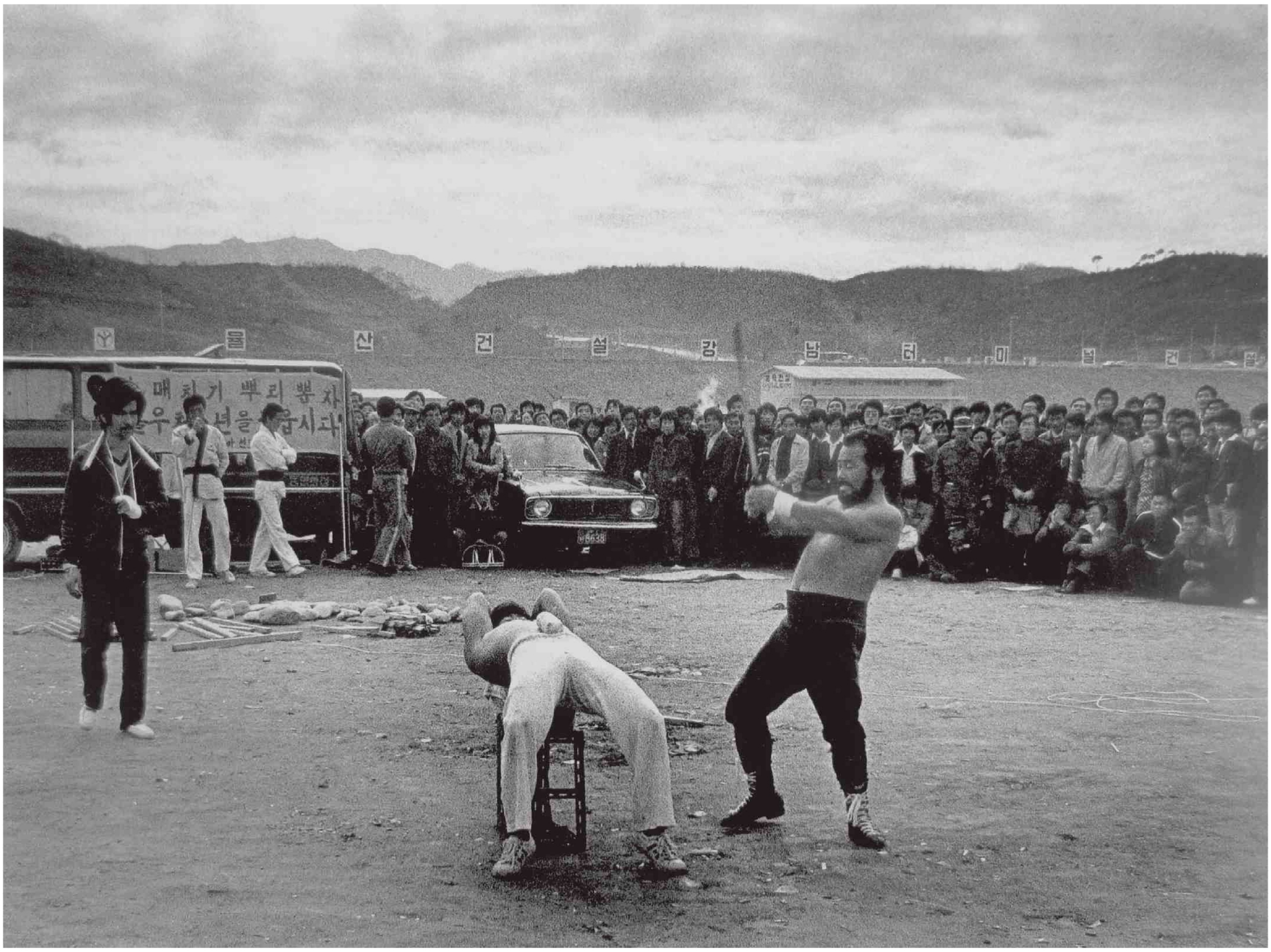
압구정동
Apgujeong-dong
서울 압구정동 1978.04.20.

막 개발된 변두리에서 출근하는 주민들은 고달프기만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잠실에서는 시내 노선을 독점 운행하는 버스를 얻어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동네 같으면 버스에서라도 편안히 앉아 가는 맛에 종점에 산다지만, 아침마다 종점부터 만원인 이 동네에서는 그런 재미마저 없었다.

잠실시영아파트
Jamsil Siyoung Apartment
서울 잠실 1978.0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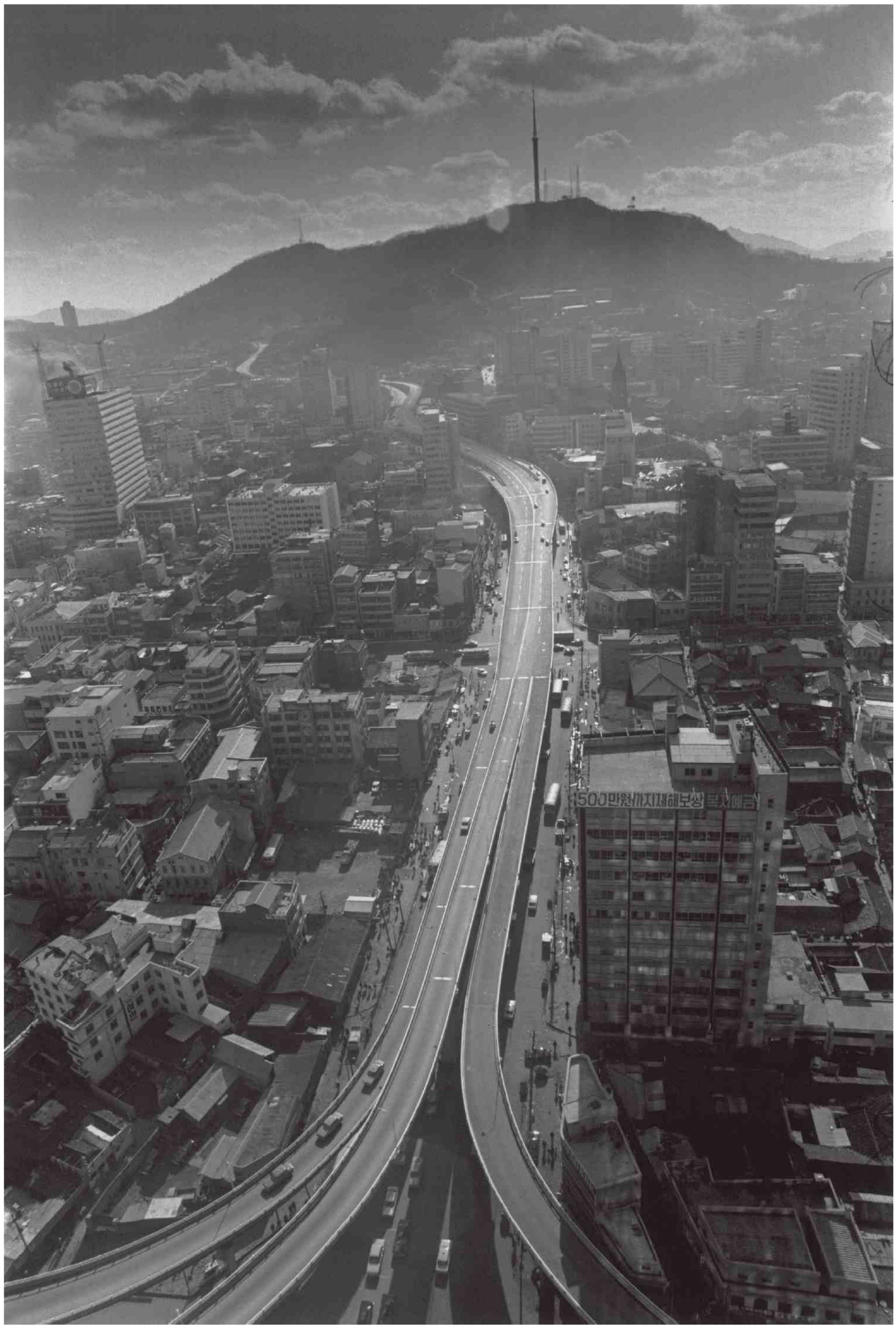
버스 정류장
Bus station
서울 잠실 1976.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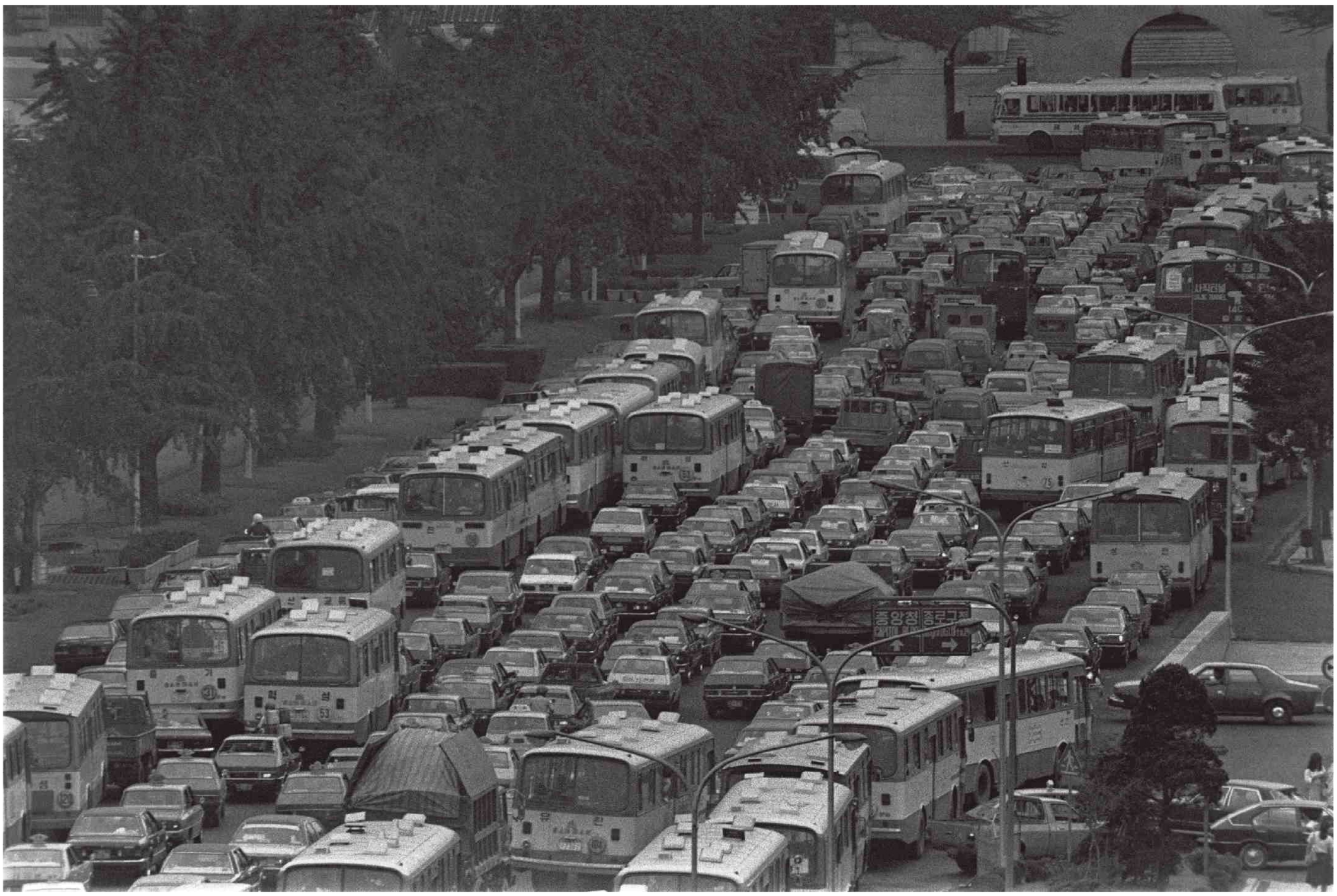
약장수
Medicine hawker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1976.

휴일을 맞아 카메라를 들고 광교 앞을 지나가다가 공사 중인 31층 높이의 빌딩 아래, 지친 몸을 눕히고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 노동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풍경은 마치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미지처럼 보였다.

근대화
Modernization
서울 광교 1969.12.14.



청계고가도로
Cheonggye expressway
서울 청계천 1972.05.20



교통체증
Traffic congestion
서울 광화문 1980.05.14.

버스 차장
Bus conductor
서울 을지로입구 1976.11.02.

1970년대 서울의 버스 출근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승객들을 짐짝처럼 싣고, 발 디딜 틈도 없이 꽉꽉 집어넣고 달리는 만원 버스였다. 여기에 나이 어린 차장이 존재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연약해 보였지만 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고 문 앞에 매달린 승객을 배로 밀치면서 '오라이' 하면서 달리는 우먼파워였다. 그러다가 콩나물시루같이 꽉 찬 승객들 틈을 비집고 다니면서도 용케 토큰을 받아냈다. 차장들의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에 따라 직업도 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잠실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면서 차장의 애처로운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을지로입구 쪽에서 차장이 손잡이를 잡고 금방 버스에 오른 승객을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버스를 쫓아가면서 찍었다. 당시 차장들은 하루에 1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 반, 막차까지 일하는 고된 직업으로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고 제조업보다도 더 열악한 장시간 노동으로 한 달에 152시간을 초과근무하면서도 고통을 견디는 직업이었다.

도시는 만원
City is overcrowded
서울 종각역 1977.12.05.

어려운 고향길
Tough way to hometown
서울역 1978.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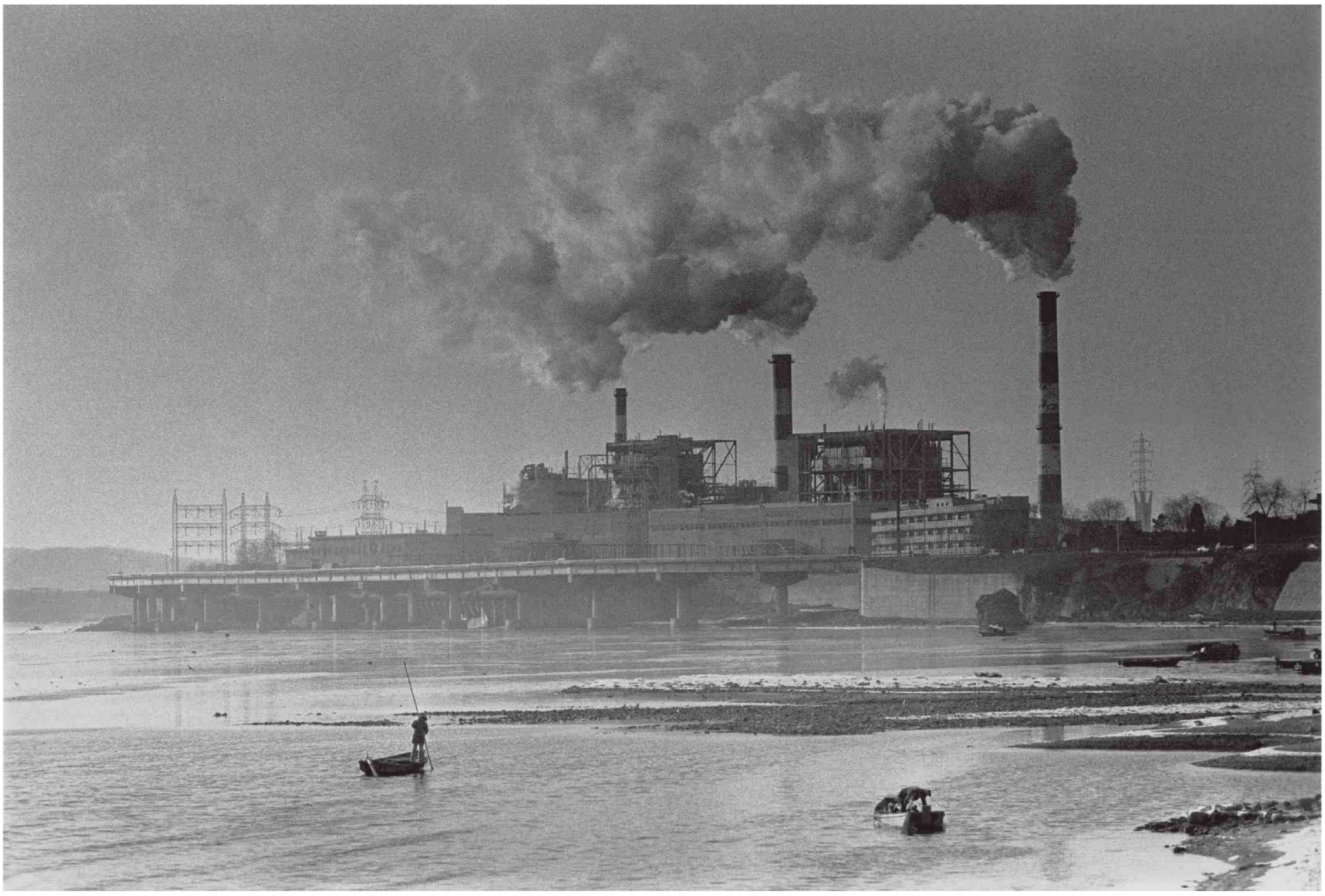
설날 기차표 예매하기도 힘든 시대가 당시 수도 서울의 명절 풍경이었다. 역무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새벽부터 줄서기를 요구했지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바람에 오후에는 줄서기도 없어지고 고향도 가기 전에 압사사고가 날 것처럼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타향살이를 하다가 추운 날씨에 기차표 한 장도 쉽게 못 구하고 몸이 파도처럼 흔들리면서 지쳐 버린 사람들의 입김이 안개처럼 머리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 이곳이 과연 수도 서울의 얼굴인가 싶었다.

보행위반자
Jaywalker
서울 동대문 1975.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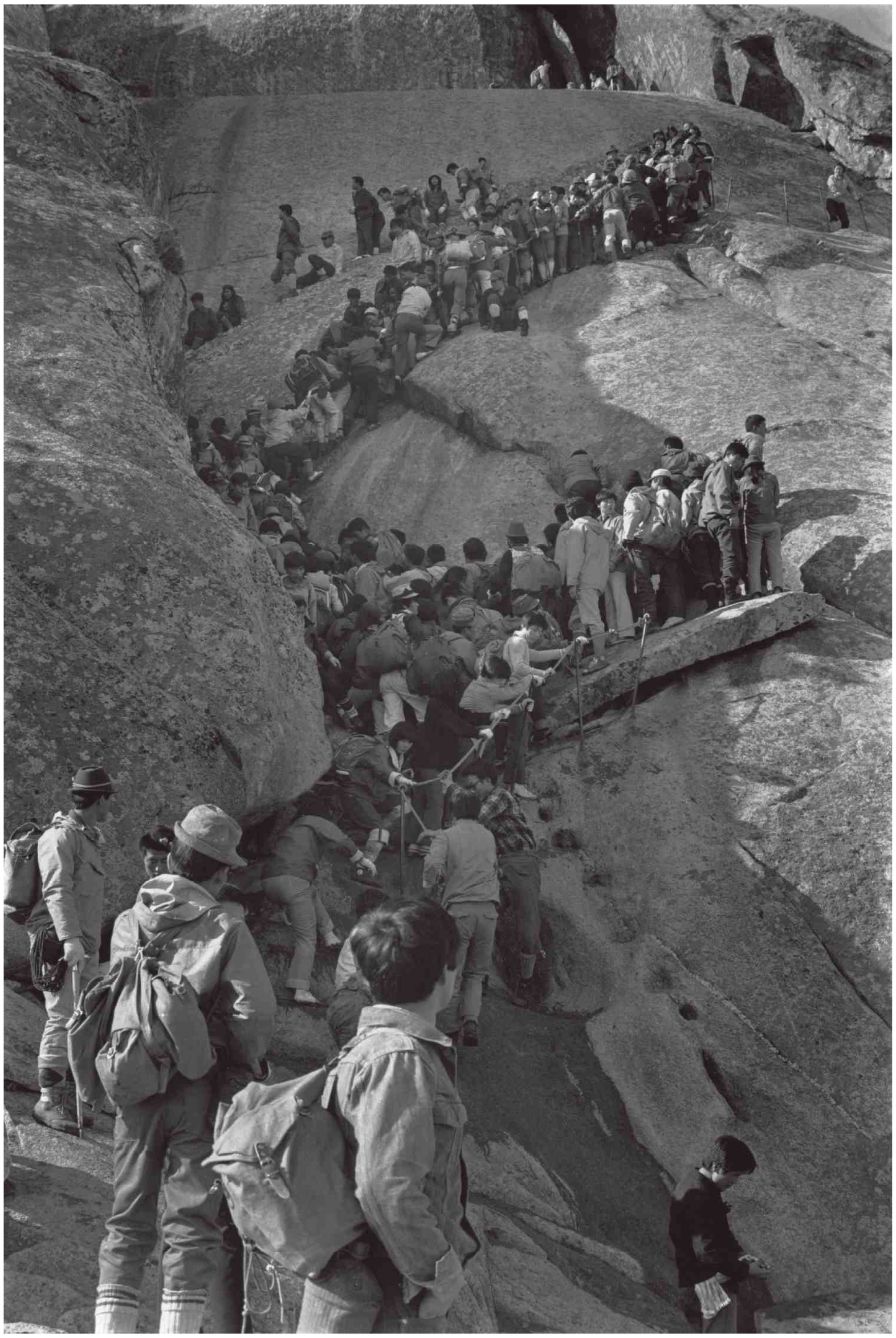
학원가
Institutes street
서울 종로 1971.07.24.

마지막 재산
The last property
서울 중랑교 부근 1972.08.19.

강태공
Angler
서울 한강 1977.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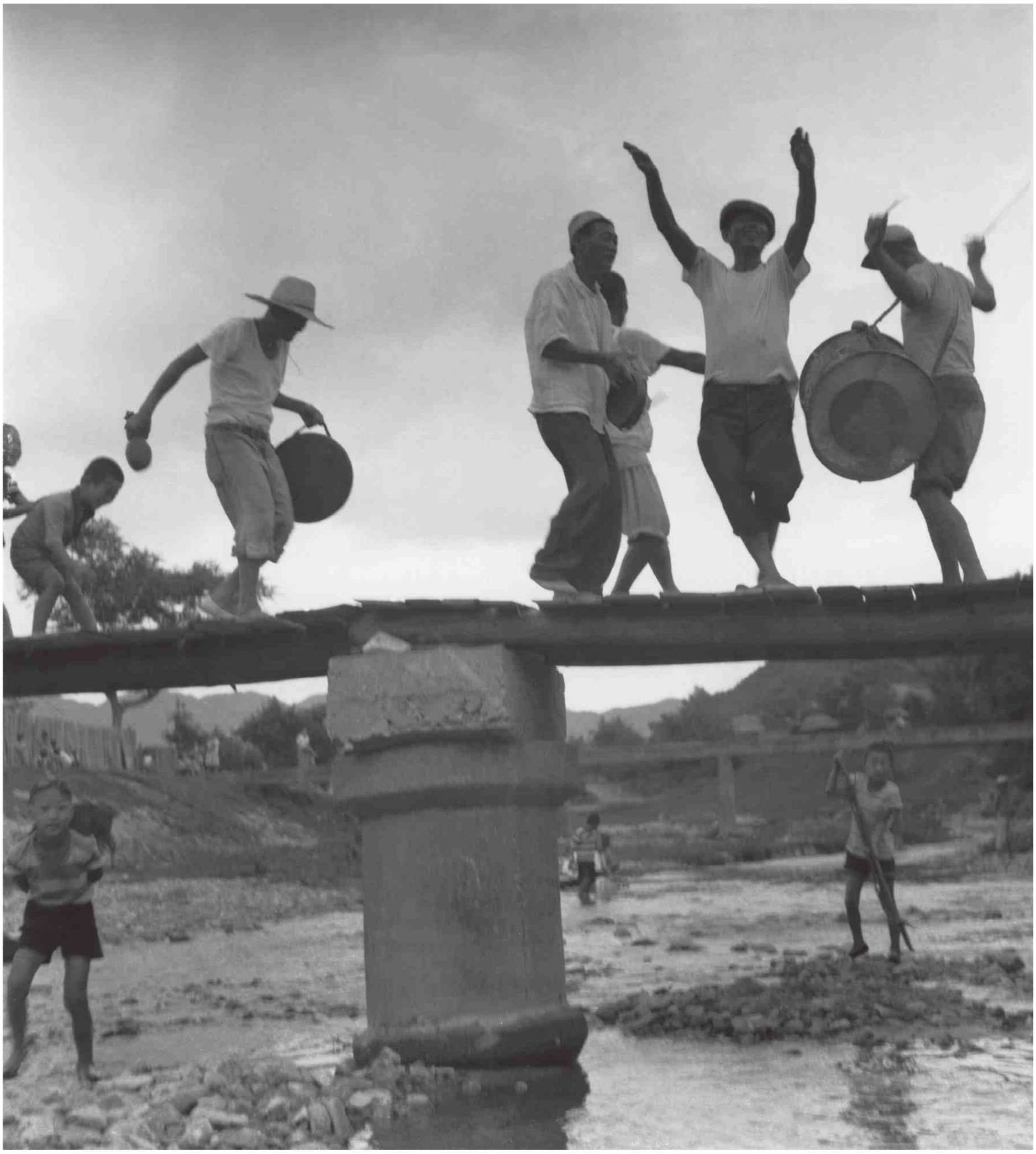
당인리 발전소
Danginlee power plant
서울 마포 1980.0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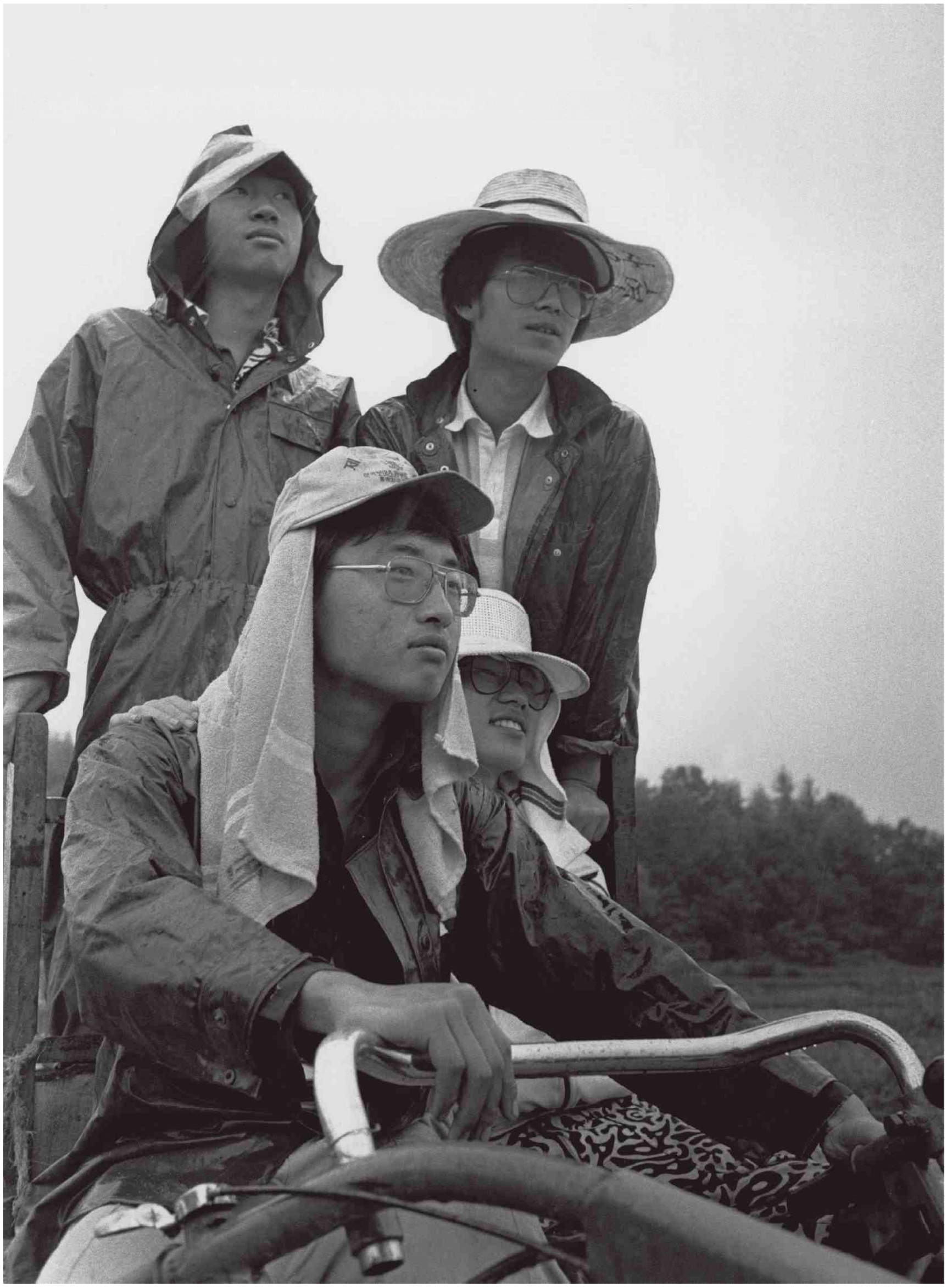
등산
Hiking
서울 북한산 1972.10.09.

시골길
Country lane
경북 안동 1984.

동행
Companion
전북 남원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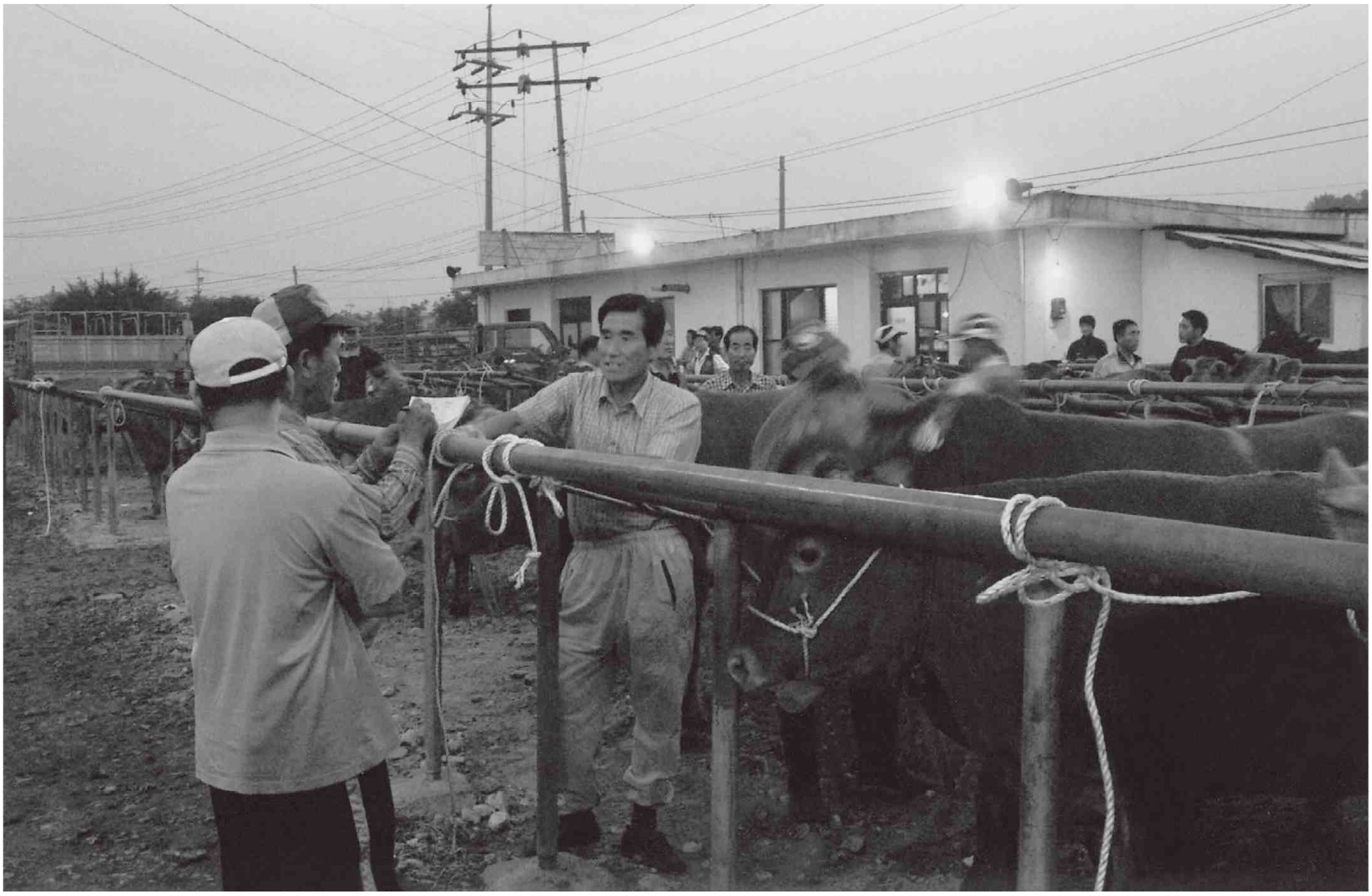
춤추는 농부
Dancing farmer
전북 장수 1970.



농활
Voluntary farming activity
전북 남원 1985.07.05.

아낙네들
Housewives
전북 남원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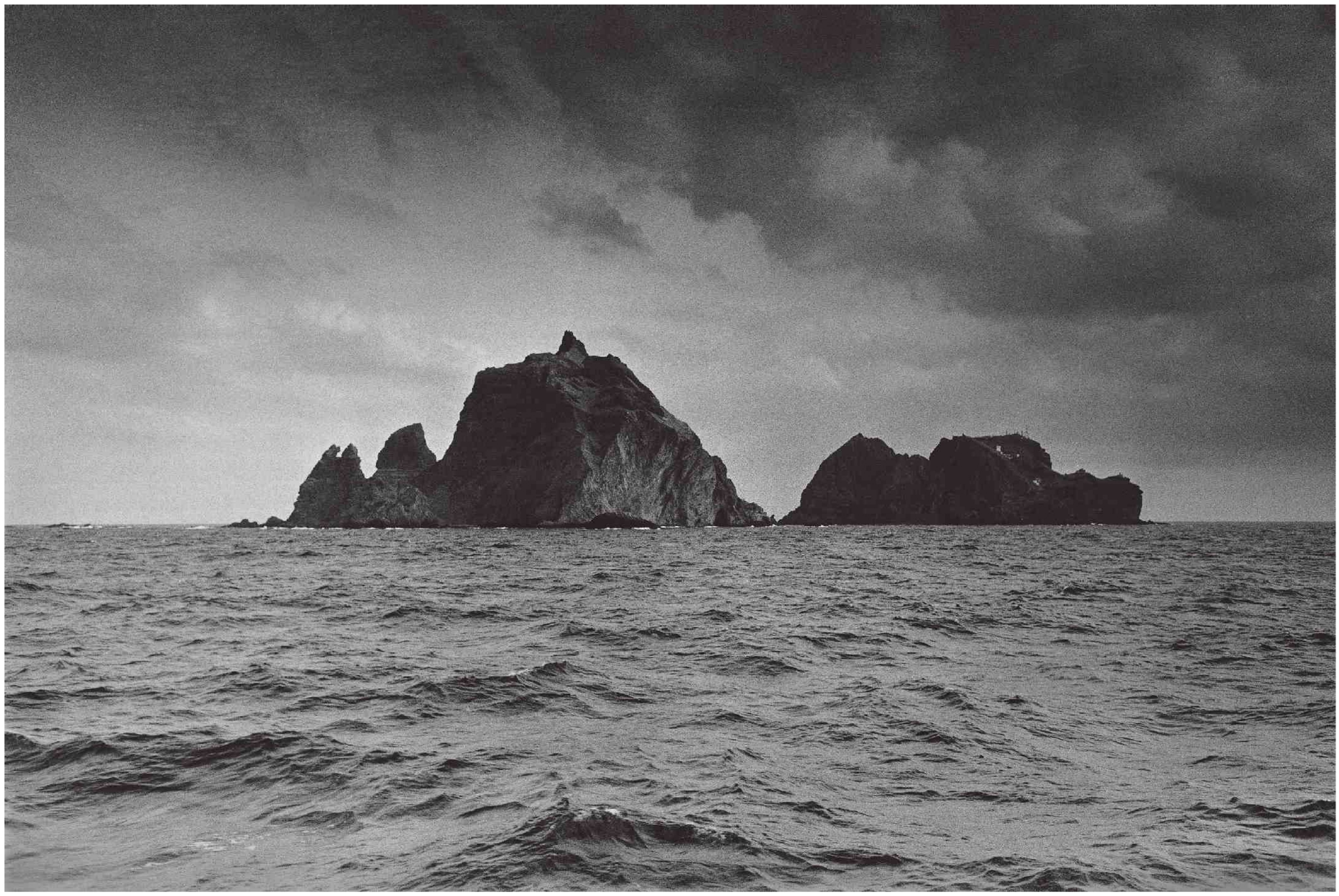
추수
Harvest
전북 익산 1986.



우시장
Cattle market
충남 홍성 2008.

사랑방
Sarangbang(Guest room)
전북 임실 1986.

유세장
Campaign rally
경북 달성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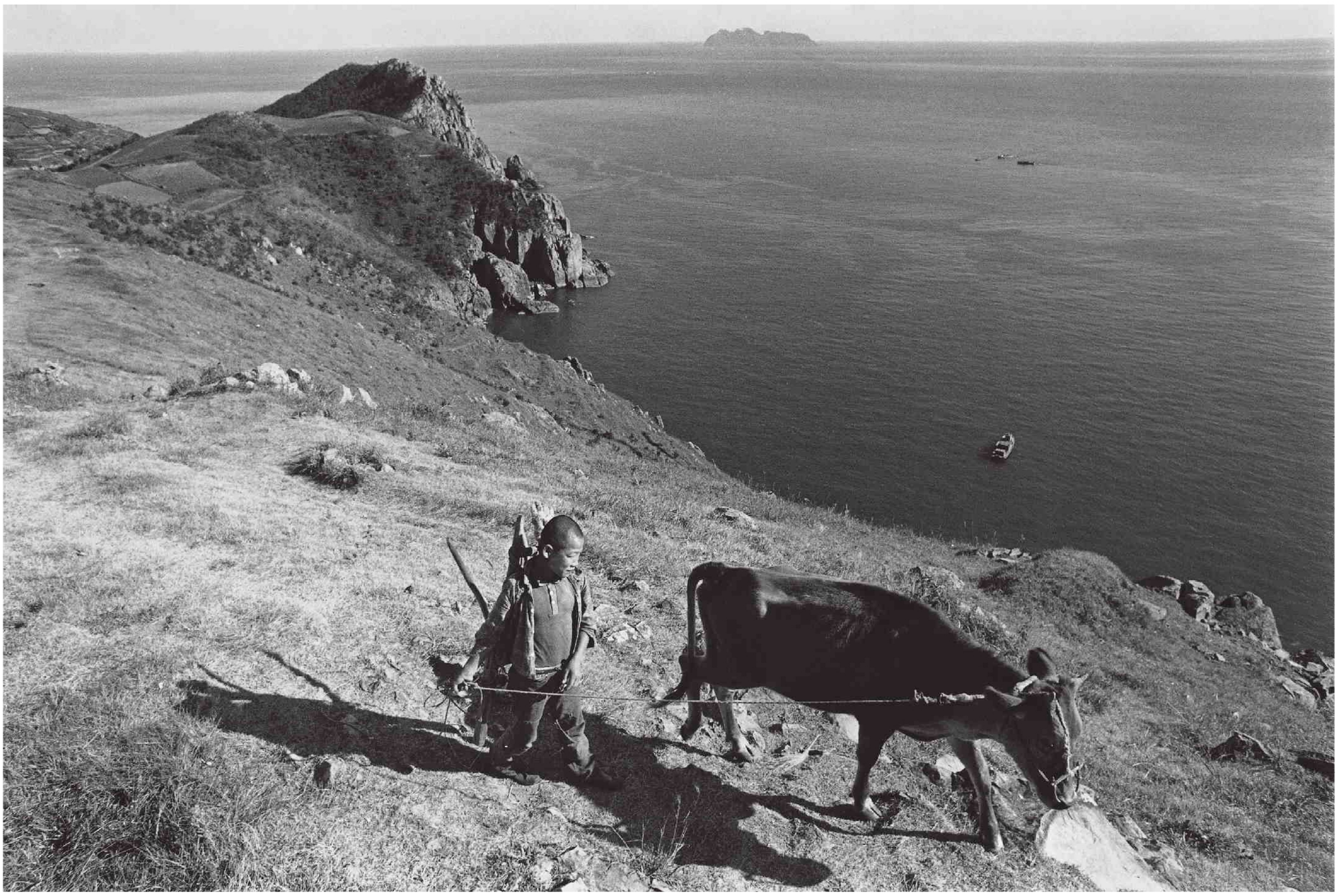


독도
Dokdo(Island)
경북 울릉 1981.09.28.

독도
Dokdo(Island)
경북 울릉 1981.09.28.

해군 배를 타고 낙도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위문을 하기 위한 행사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 마을로 들어 갔을 때 일이었다. 저녁 무렵 동네 마을로 오르는 숲길에서 등짝에 제 몸의 반절이 넘는 헌 자루를 짊어지고 걸어오는 아이를 발견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 섬 아이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뭐가 좋은지 깔깔 웃었다. 천진난만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섬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아저씨 영화 촬영하는 거예요?"라고 물었다.
비록 등에 진 자루도 낡고 입고 있는 옷도 너무 남루했지만 섬 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은 도시 아이들에게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모든 편견과 낡은 것들을 순식간에 부숴 버리는 보석 같은 웃음이었다. 아이가 웃고 있던 표정은 당시 19박20일 정도 낙도를 돌면서 수많은 사진을 찍은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사진이었다. 그때 때묻지 않은 섬 아이의 환한 미소가 강하게 남아서 내 삶이 힘들 때 언제나 사진을 꺼내 보는 버릇까지 생겼다. 그러면 싱글벙글하던 아이의 미소가 짧은 인생을 되도록이면 웃고 살라고 가르쳐 주고 언제나 가슴을 흔들어 주는 사진이 되었다.

섬마을 어린이
Children in an island
전남 진도 대마도 1972.10.09.



연화도
Yeonhwado(Island)
전남 진도 연화도 1971.10.07.

조도
Jodo(Island)
전남 진도 조도 1972.10.11.

전남 신안군의 '하태도' 섬에 내리니 비가 올 것 같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무엇을 찍을 것인가, 해안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해안에 땔감 나뭇가지들을 널어 놓은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빨리 땔감들을 걷어서 집으로 옮겨야 한다"는 고함이 들렸다. 어린 딸과 친구들이 합세해서 나뭇가지들을 머리에 이고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찍었다. 열 살 정도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덩치보다 큰 땔감을 머리에 얹고 뒤뚱거리면서도 사진을 찍는 나를 보고 밝게 웃었다. 이 사진을 포함해 인사동에서 30여 점의 '섬' 사진만 가지고 흑백전시회(2005년 5월 3~23일)를 열게 되었다.

이 사진을 본, 알지 못하는 40대 아줌마가 사진 관람을 하다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것을 목격했다. 고향이 하태도라는 아줌마는 어린 시절에 해안에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자랐다고 하면서 섬 사진을 보자마자 어려운 가정형편에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컥했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사진은 글보다는 빠르게 인간의 가슴을 흔드는 효과가 있음을 느꼈다. 그러면서 거창한 현장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삶을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들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는 생각을 했다.

비바람 부는 날
A day of a rainstorm
전남 신안 하태도 1972.10.02.

소마도
Somado(Island)
전남 진도 소마도 1972.10.09.

사량하도
Saryanghado(Island)
경남 통영 사량도 1971.09.27.

오곡도
Ogokdo(Island)
경남 통영 오곡도 1981.04.28.

안녕
Goodbye
전남 진도 성남도 1972.10.06.

나는 카메라를 만지면서부터 인물사진을 좋아했다.

인물은 사회의 근간이면서 역사를 움직이는 원형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용기, 갈등, 용서, 분노,

절망, 사랑, 이해, 냉정, 극복 등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고 모든 세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해서 외로운 '섬'을 찍으면서도 인간을 생각했고,

'서울'을 찍으면서도 항상 사진에 인간이 들어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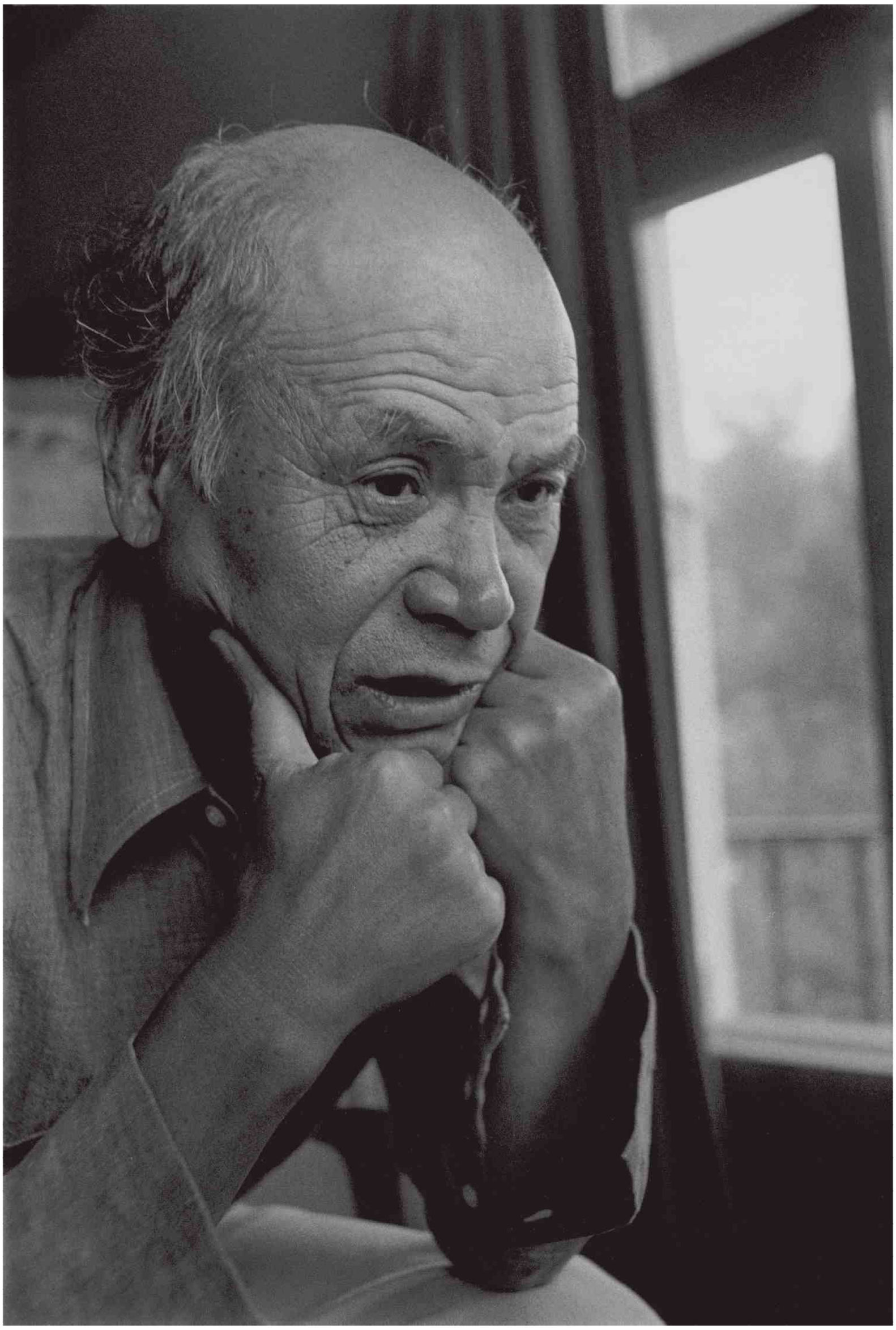
한다고 생각했다.

글·전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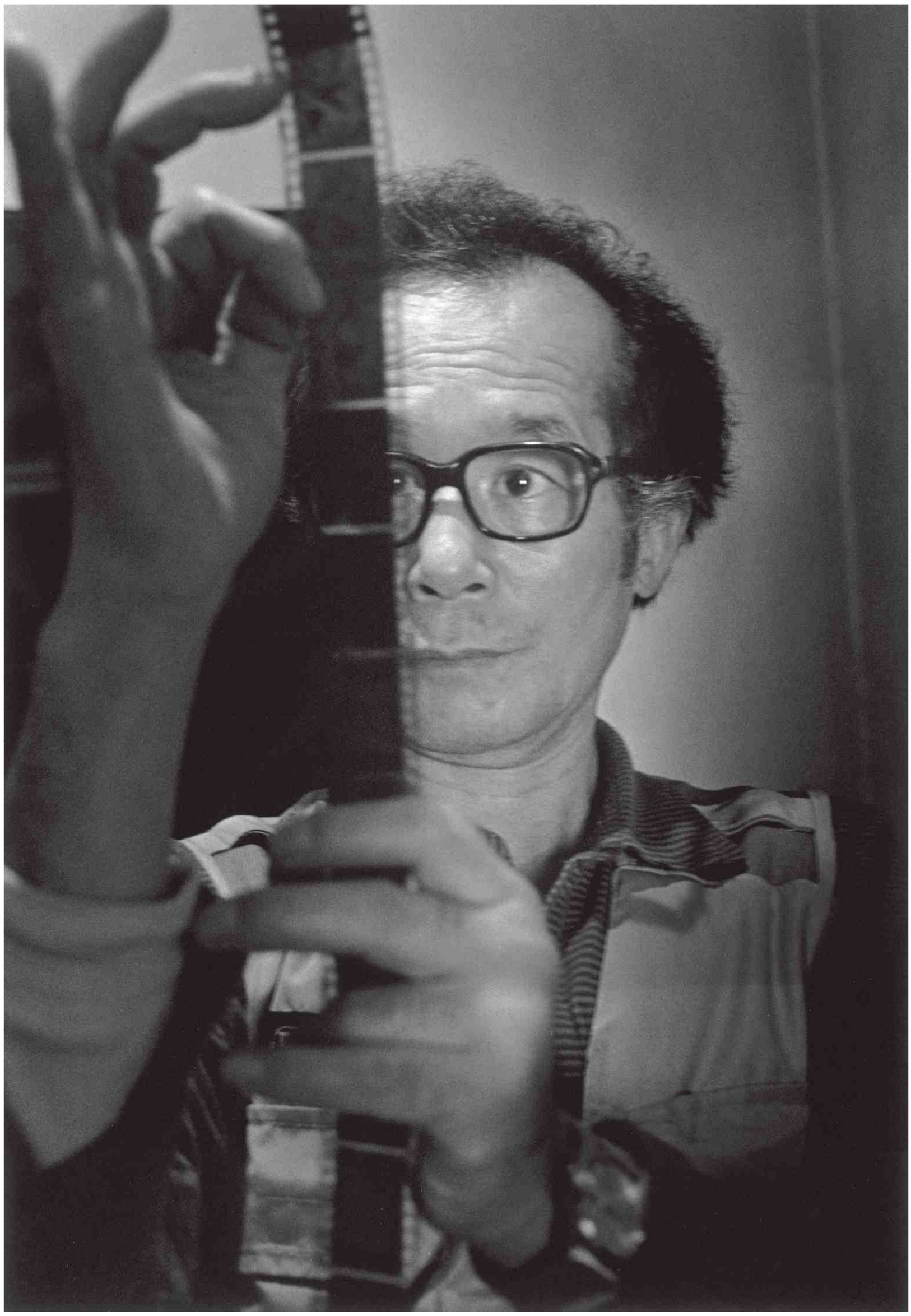
그가 만난 사람들

The people he 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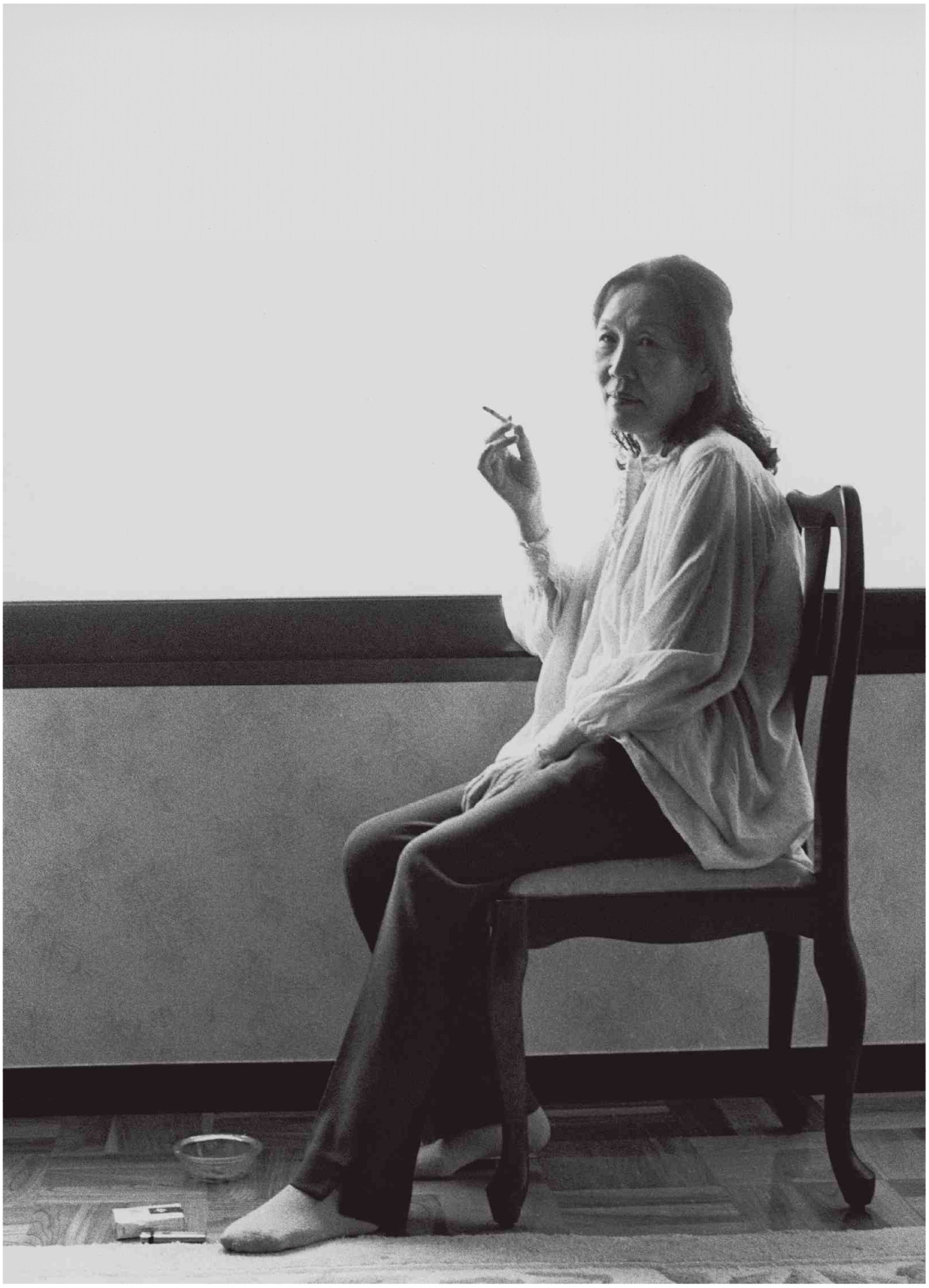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Video artist Baek Namjun
서울 혜화동 1984.0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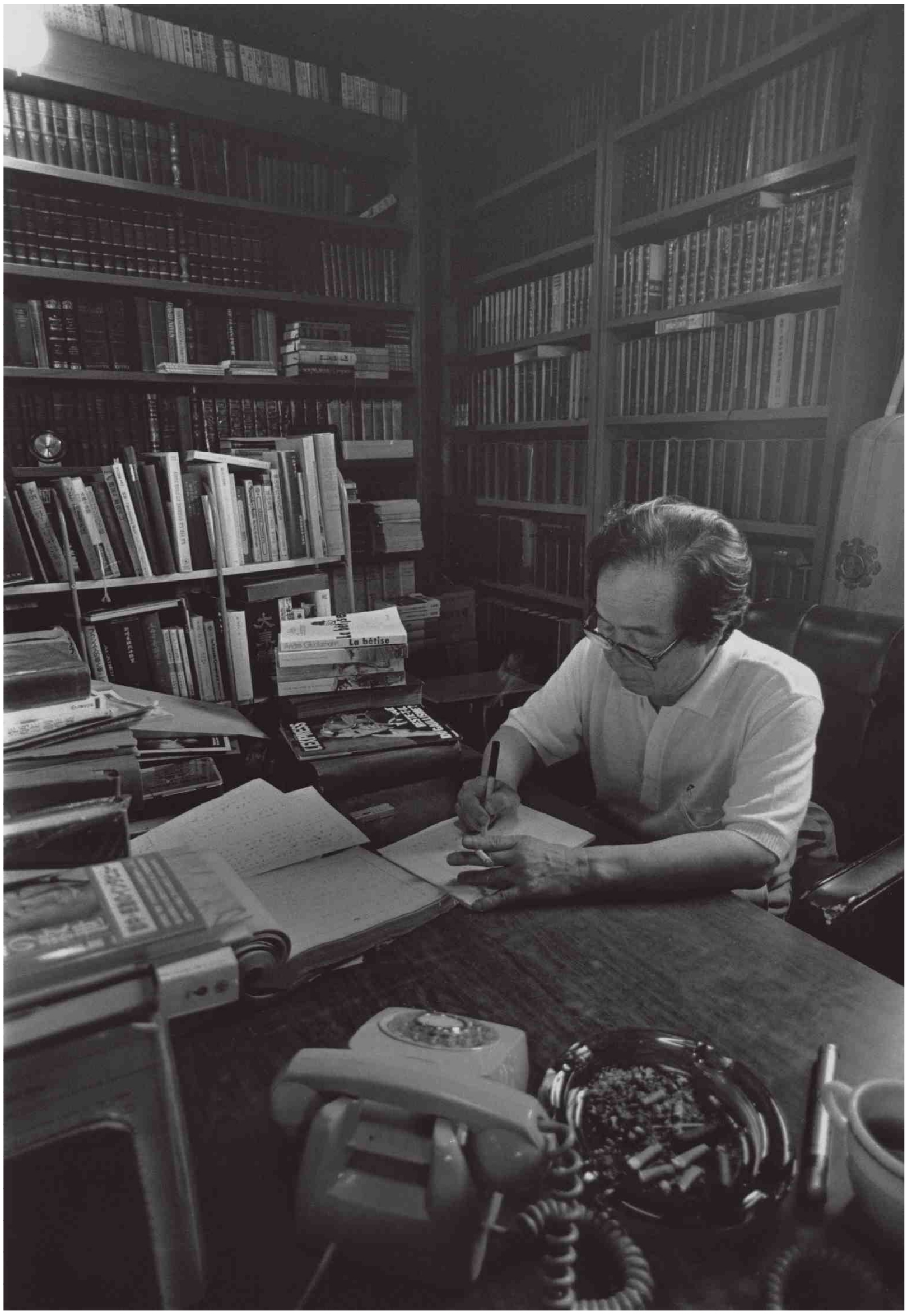
화가 남관
Artist Nam Kwan
서울 세검정 1981.08.11.



사진가 최민식
Photographer Choi Minsik
부산 1988.12.27.



화가 천경자
Artist Chun Kyungja
서울 압구정동 1983.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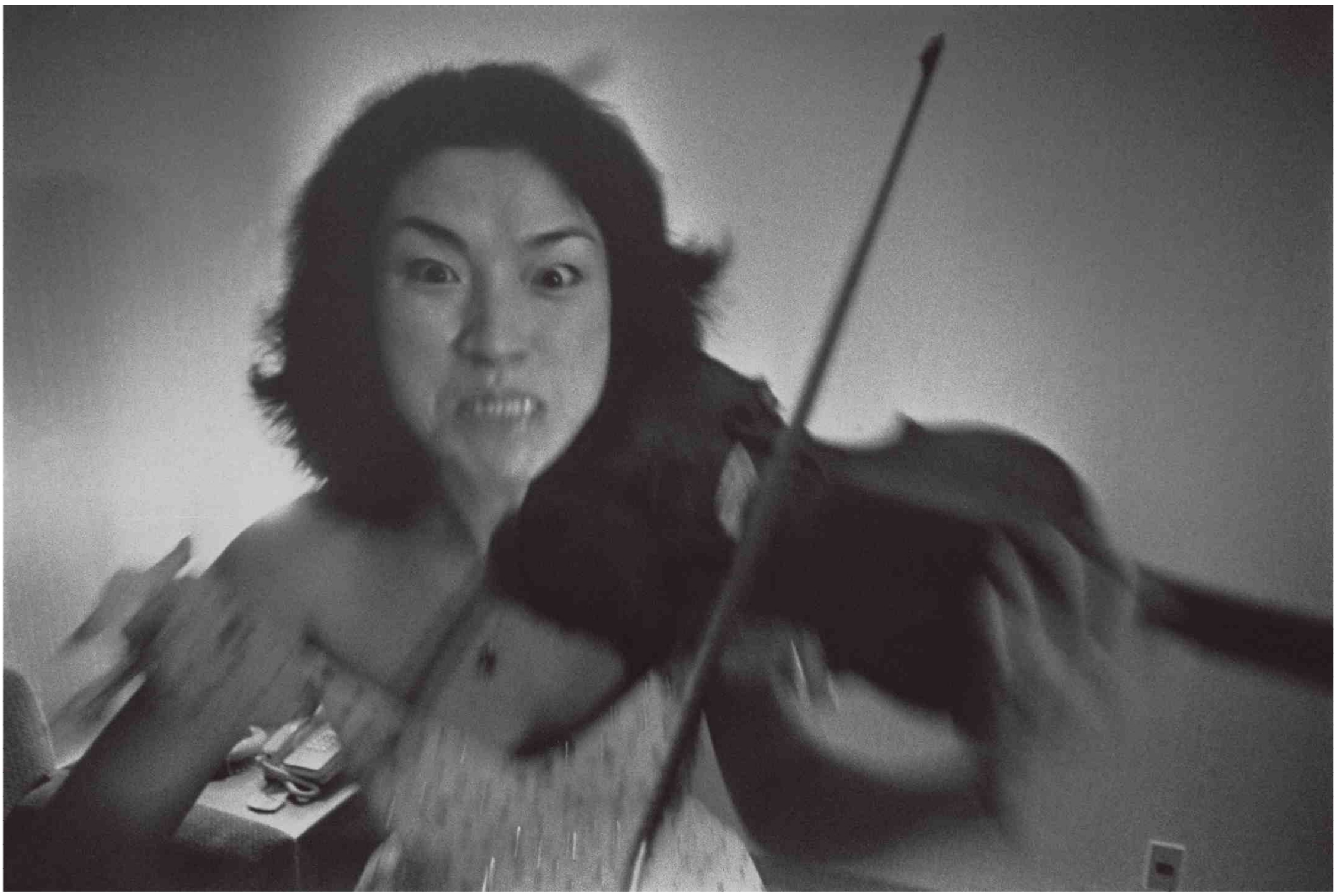


소설가 이병주
Novelist Lee Byeongju
서울 원효로 1985.06.19.

학자 이어령
Scholar Lee O-young
서울 여의도 1985.09.17.

작곡가 길옥윤
Songwriter Gil Okyun
서울 효창공원 1982.0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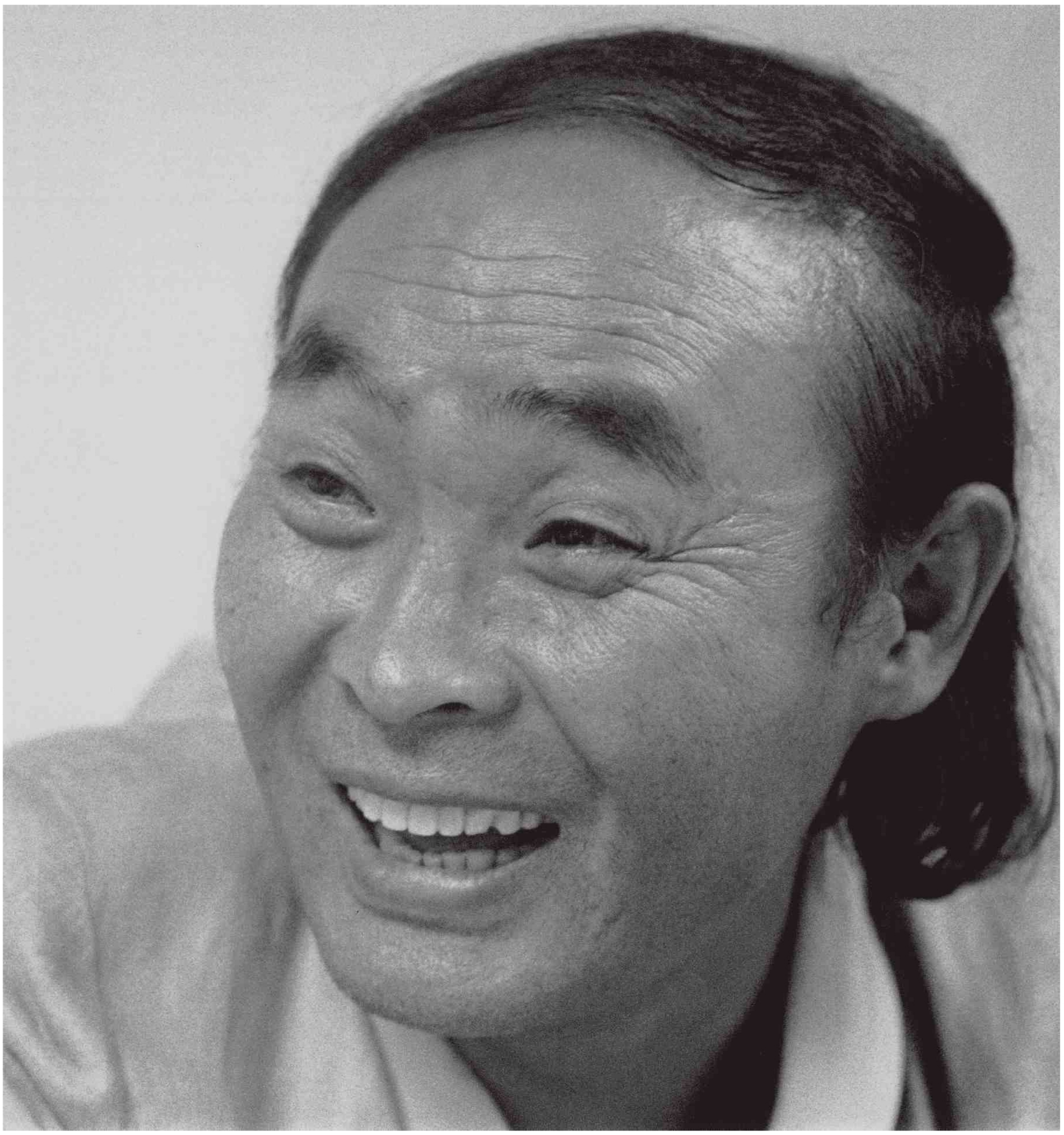
피아노 연주자 서혜경
Pianist Suh Haikyung
서울 세종문화회관 1985.0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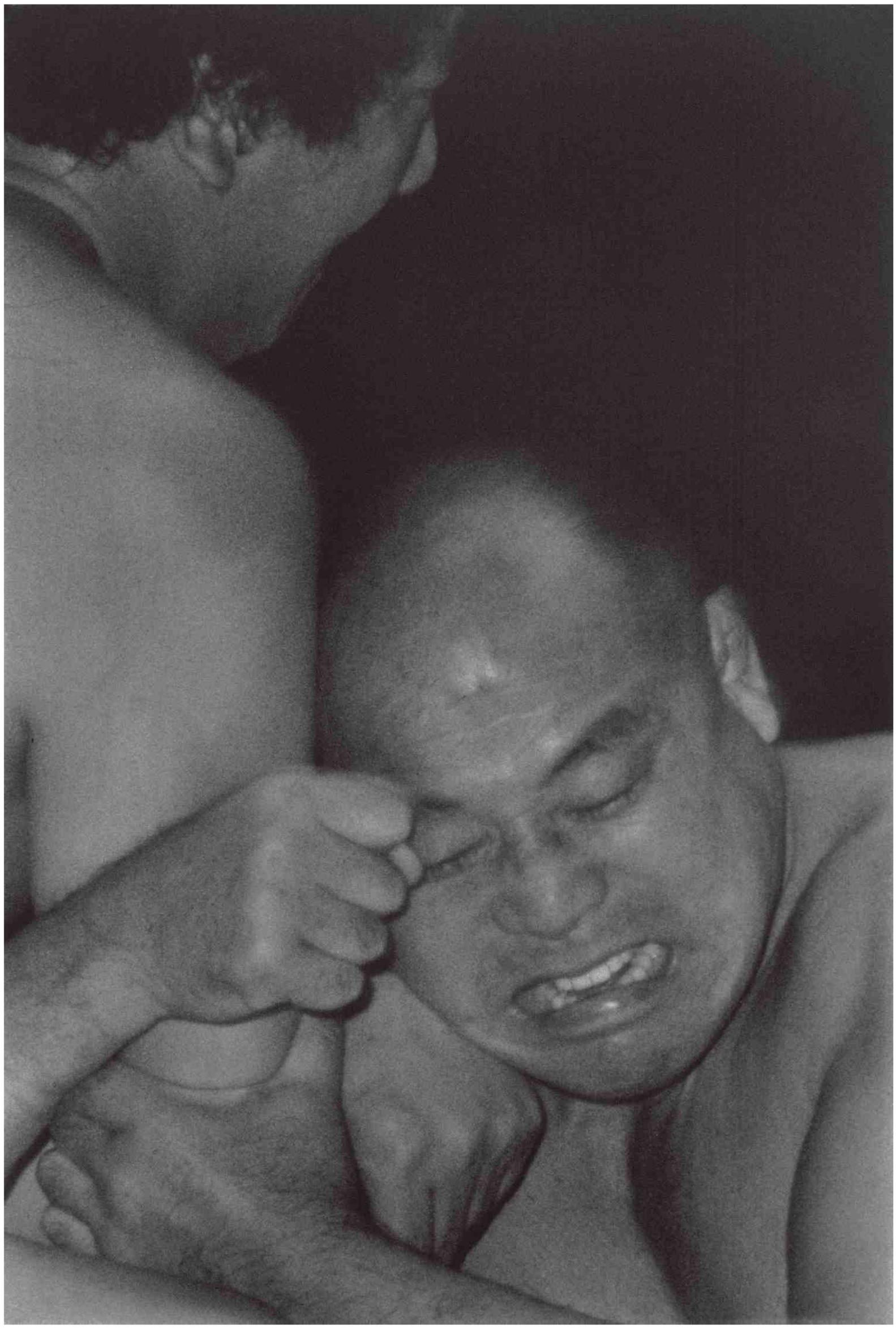
바이올린 연주자 정경화
Violinist Jeong Kyeonghwa
서울 신라호텔 1985.05.10.

한국전쟁 때 음악가 김동진 씨(1913~2009)는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38선에서 북한 정보장교에게 체포되었다고 했다. 북한 장교가 "뭐 하는 사람이오"라고 묻더니 "당신이 가고파의 김동진이라고?" 의심하며 "그러면 가고파를 한번 불러 보시오" 했다. 만약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전쟁 중이어서 어떤 누명을 쓸지 몰라 노래를 불러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중대한 시간이었다. 목청을 가다듬고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간들 잊으리오,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라고 불렀다. 노래를 들은 심문 북한 장교는 감정이 복받치는지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정하게 김동진 씨의 손을 잡아 주면서 "내가 당신을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오. 자유 대한에서 행복하게 사시오"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남들 모르게 풀어줬다고 했다. 김동진 씨는 전쟁 통에 살아난 경험으로 감동적인 예술에는 어떤 이념도, 어떤 권력도, 어떤 갈등도 모두 눈 녹듯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 사진을 찍을 때도 옛날 생각이 났는지 사진기자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바이올린을 꺼내 와서 즉석에서 '가고파'를 진지하게 연주했다. 나도 사진을 찍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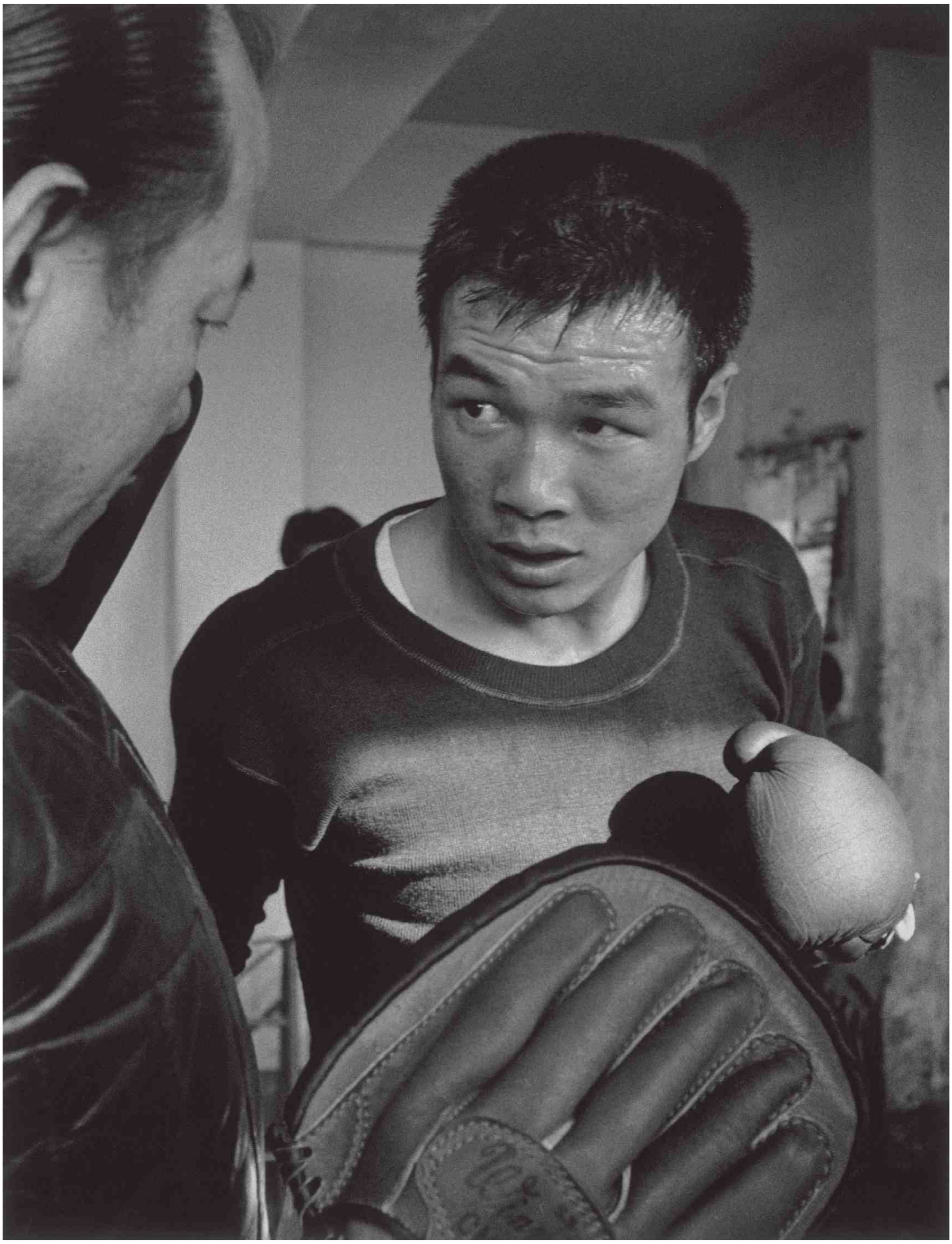
작곡가 김동진
Songwriter Kim Dongjin
서울 종로 1986.02.10.



희극인 이주일
Comedian Lee Juil
서울 광화문 1984.0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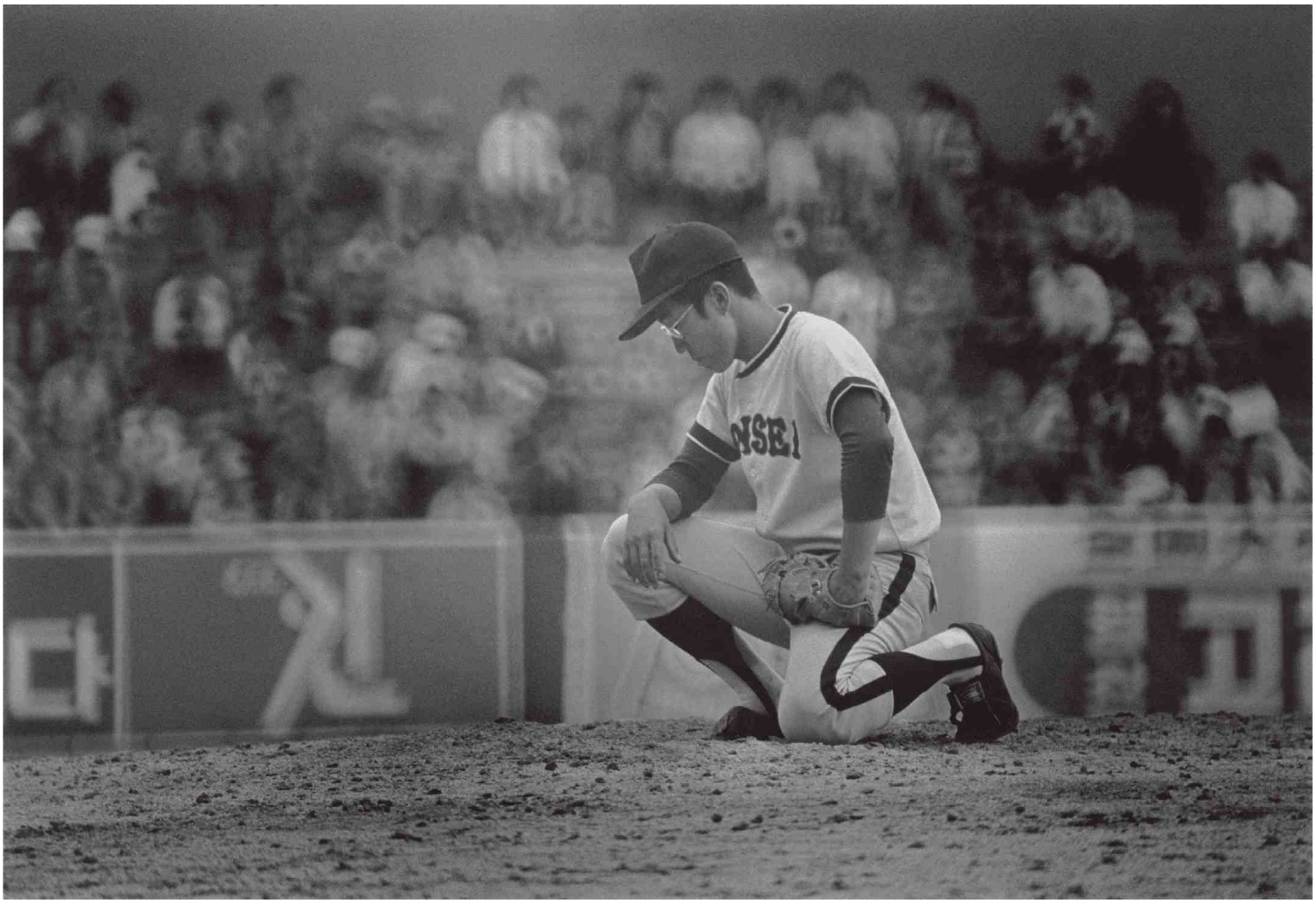


프로레슬러 김일
Professional wrestler Kim Il
서울 장충체육관 1979.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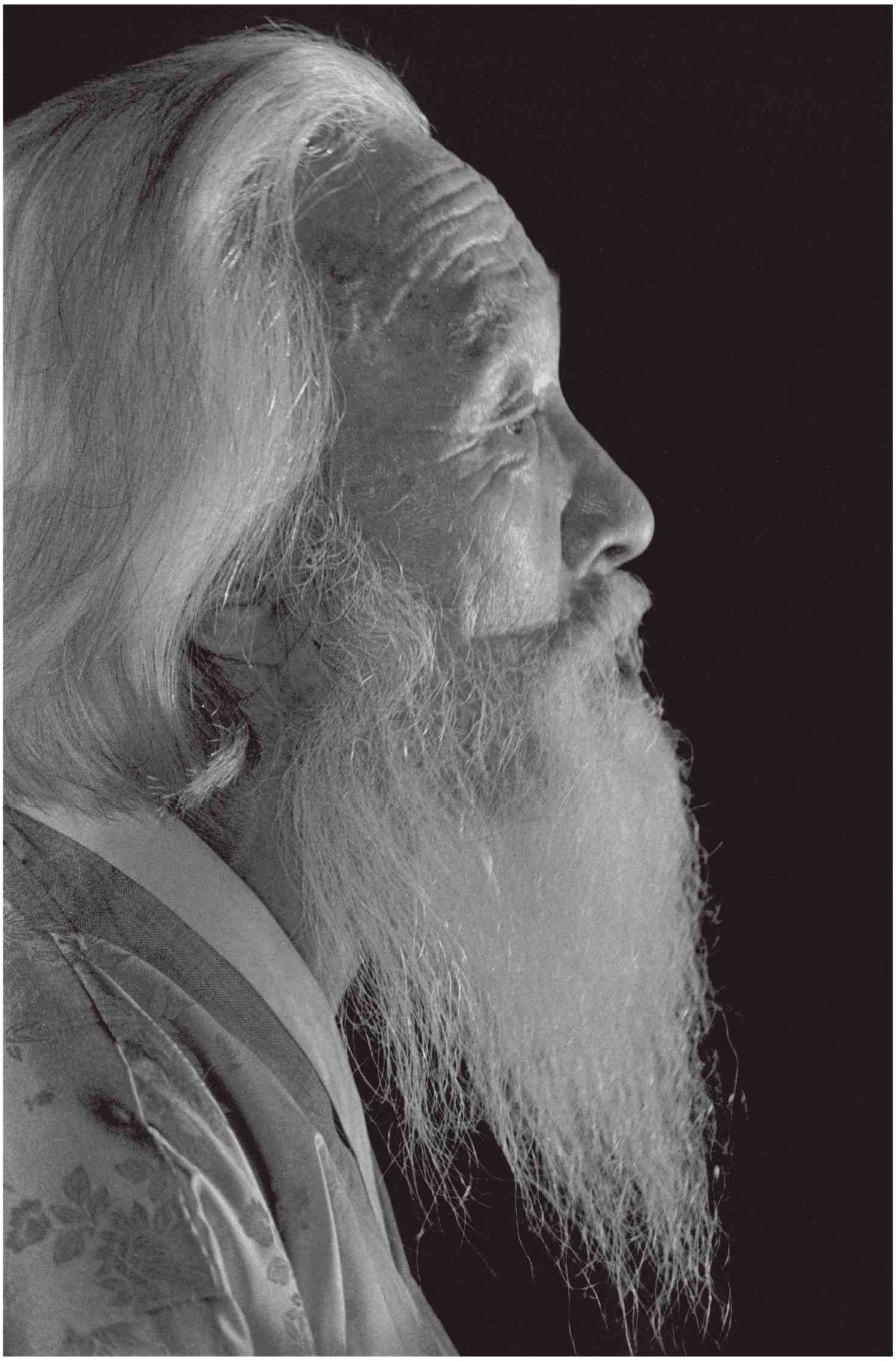
권투선수 홍수환
Boxer Hong Suhwan
서울 용산 1972.06.19.

축구선수 차범근
Football player Cha Bumkun
서울 동대문운동장 1977.04.03.



야구선수 최동원
Baseball player Choi Dongwon
서울 동대문운동장 1978.06.05.

야구선수 박철순
Baseball player Park Cheolsoon
서울 구로 1983.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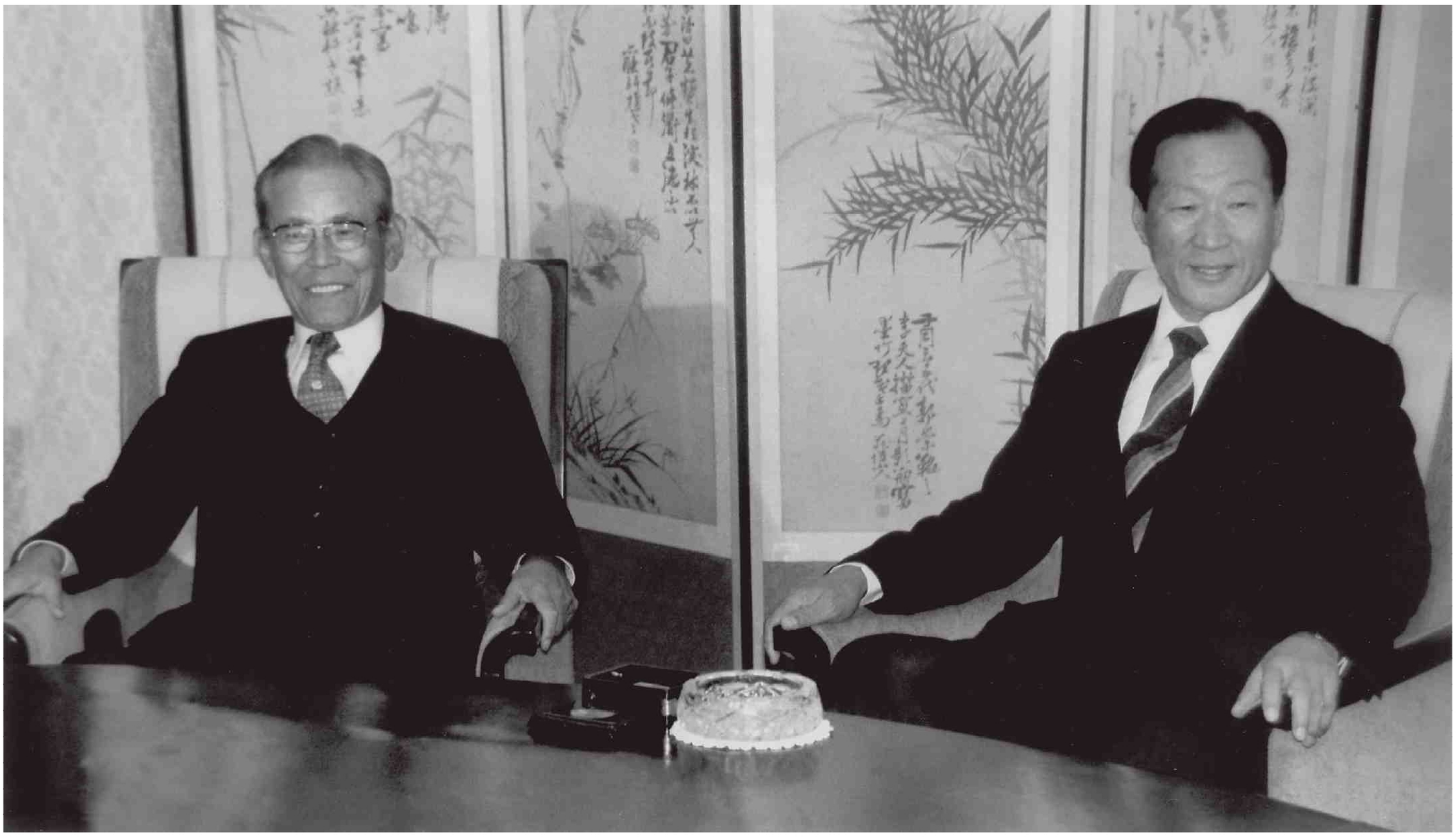


기독교사회운동가 함석헌
Christian activist Ham Seokheon
대전 카톨릭농민회관 1980.0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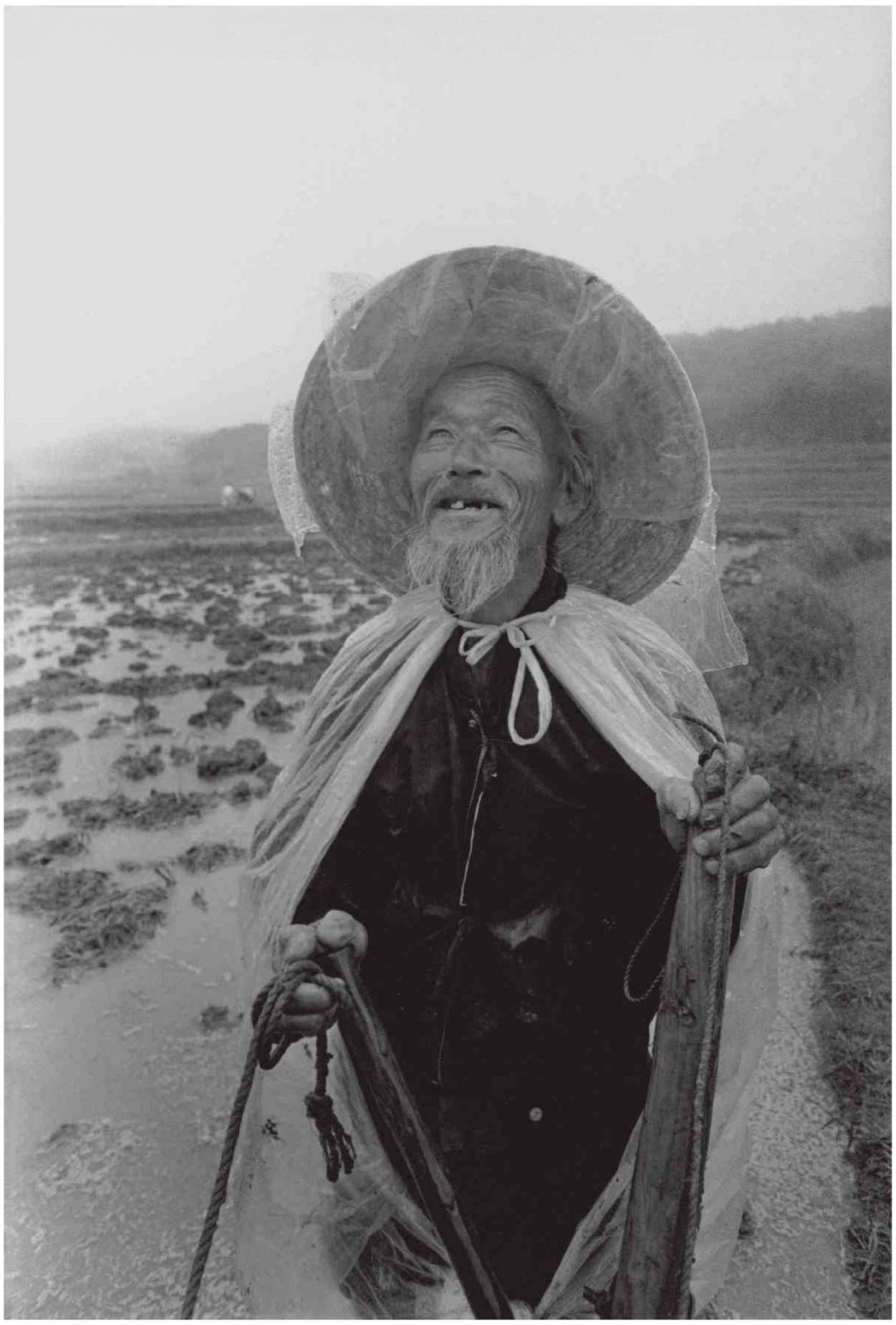
성철 스님
Monk Seongcheol
경남 합천 해인사 1982.01.22.

김수환 추기경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서울 명동성당 1985.09.12.

라이벌 1 : 김대중·김영삼
Rivals 1: Kim Daejung & Kim Youngsam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1980.02.15.



라이벌 2 : 이병철·정주영
Rivals 2: Lee Byungchul & Chung Juyung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1980.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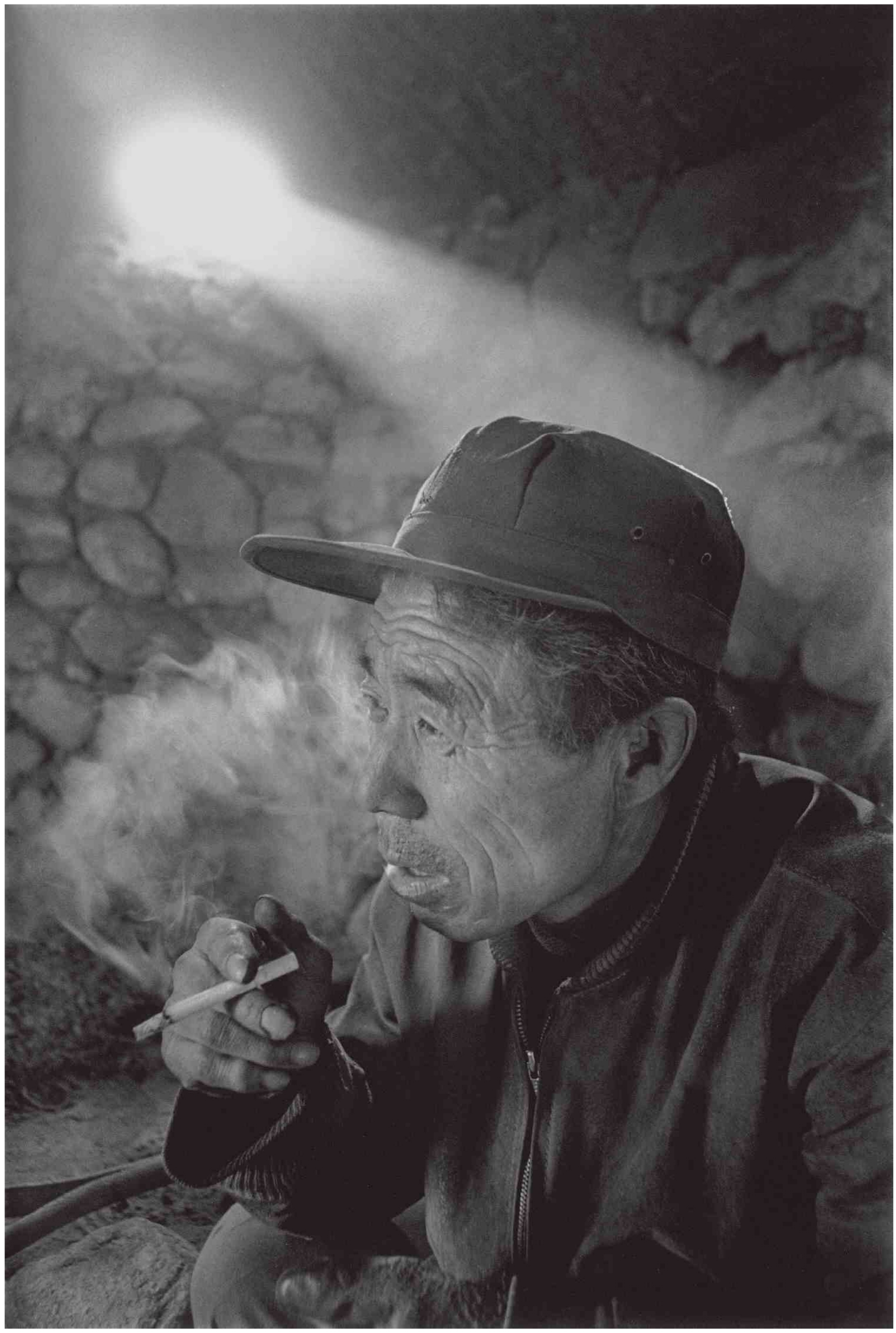


가뭄 끝에 억수같이 비 내리는 하늘을 향해 넉넉하게 웃는 농부의 얼굴은 마치 성자 같았다. 농부는 소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 비를 너무 맞으면 소가 감기에나 걸리지 않을까 등에 비닐을 덮어씌우고, 자신의 밀짚모자와 검은 점퍼에도 온통 비닐로 덮어 밭갈이를 하고 있었다.
논두렁에서 사진기자가 비를 흠뻑 맞아가면서 정신없이 사진을 찍어대자 전라도 사투리로 '무슨 사진을 그리 찍소' 하며 군자처럼 빙긋 웃었다. 그 후 나는 '한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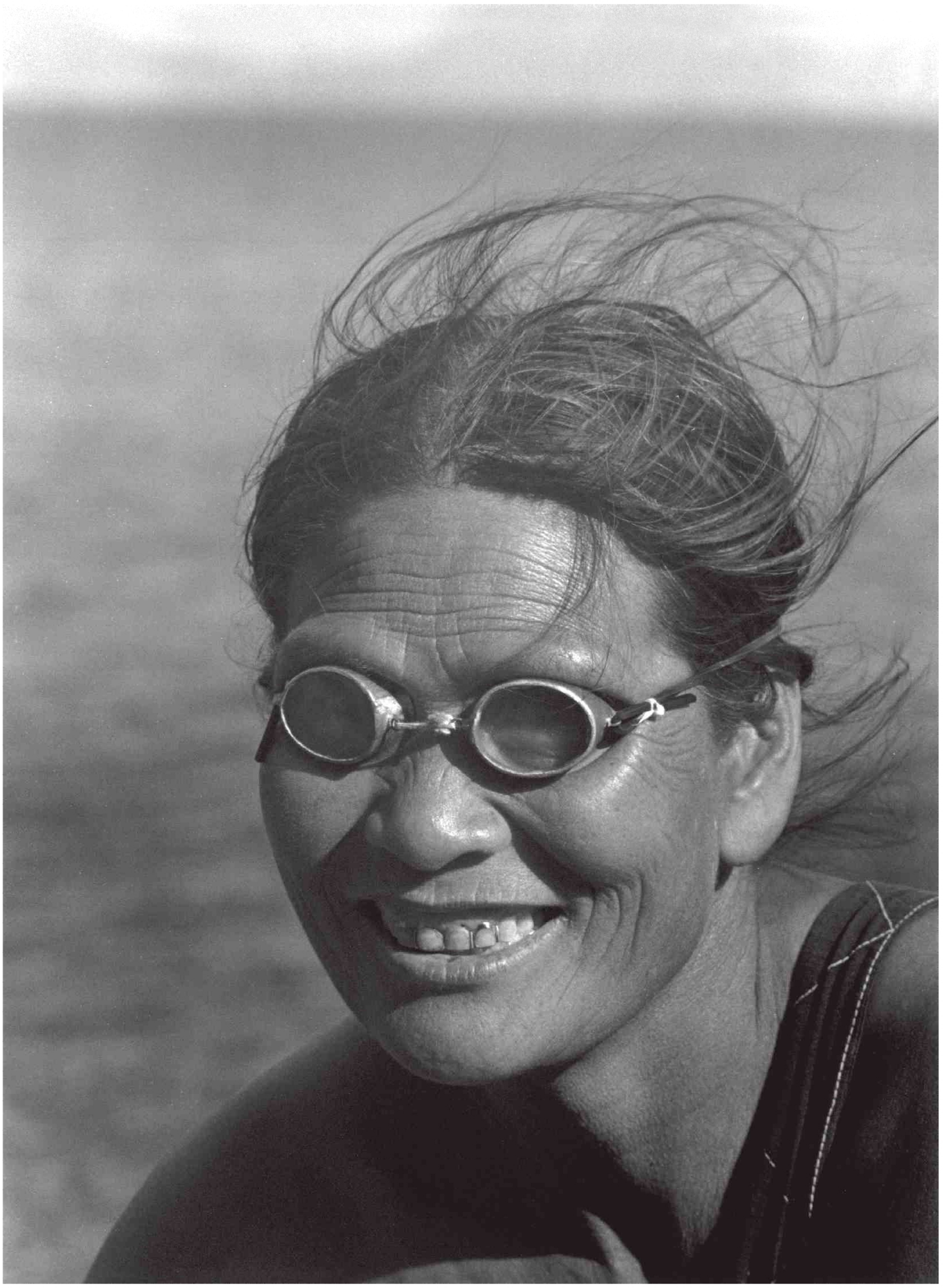
농부
Farmer
전북 남원 1982.07.14.

진정한 농부상 이미지'를 더 찾기 위해 전국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농부들만 보면 사진을 계속 찍었지만 남원에서 찍은 농부의 표정을 압도하는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25년이 흐른 후 그때 찍은 성자 같은 농부의 모습을 찍기 위해 당시 촬영했던 전북 남원 대산면 풍촌리 현장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농부는 당시 사진을 찍은 12년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너무나 안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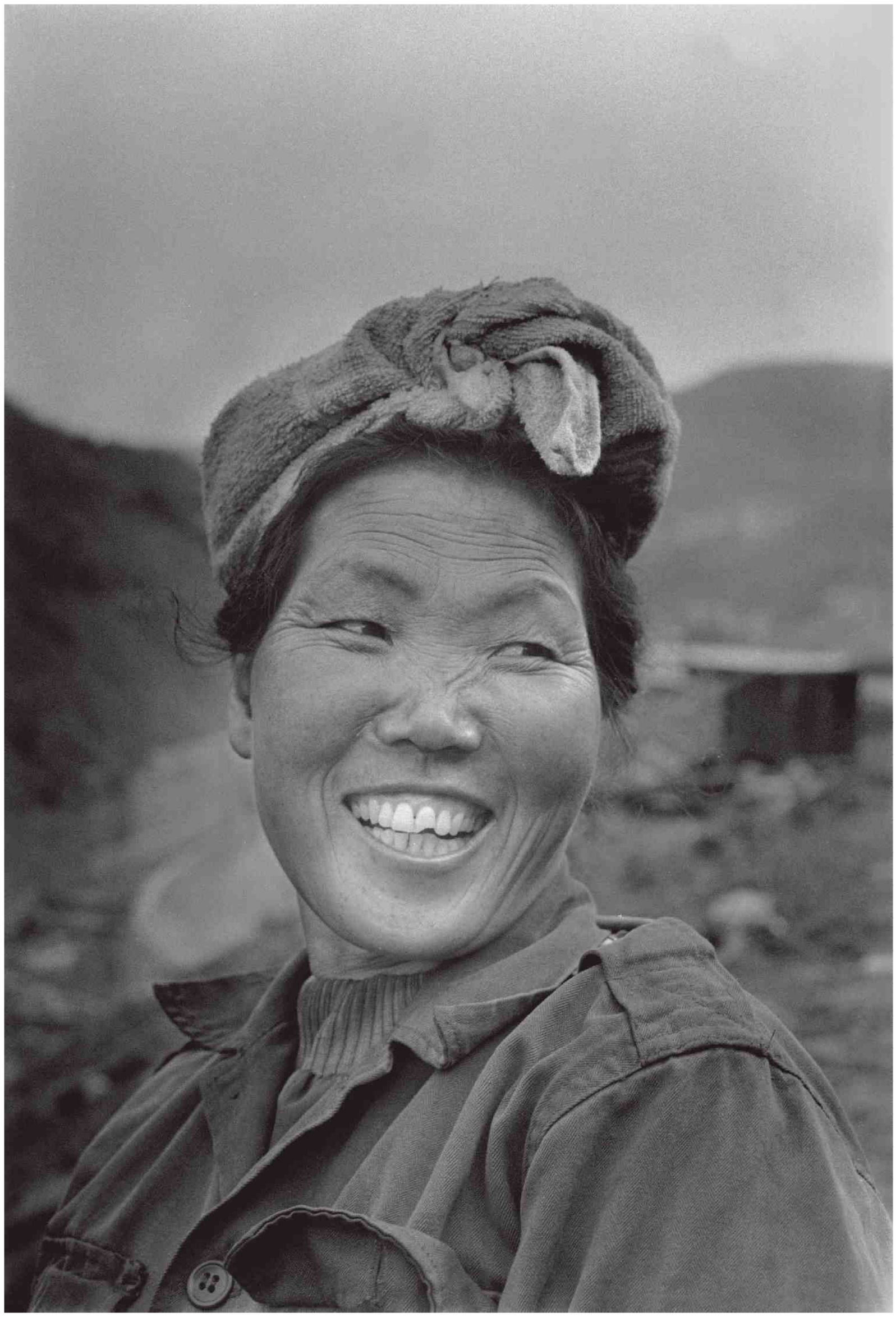
농부의 가족
Farmer's family
전북 남원 2007.12.08.



숯장수
Charcoal dealer
강원 횡성 2000.



해녀
Haenyeo(Female diver)
전남 홍도 1974.07.22.



여성광부
Female mine worker
강원 정선 1990.05.10.

군밤장수
Roasted chestnuts seller
전남 해남 1992.01.10.

달구꾼
Rammer
서울 망우리공동묘지 1969.02.08.

공사장 인부
Construction worker
서울시청 앞 1972.04.19.

기관사
Engineer
청량리–제천 열차 1988.08.02.

교통경찰
Traffic police
서울 광화문 1971.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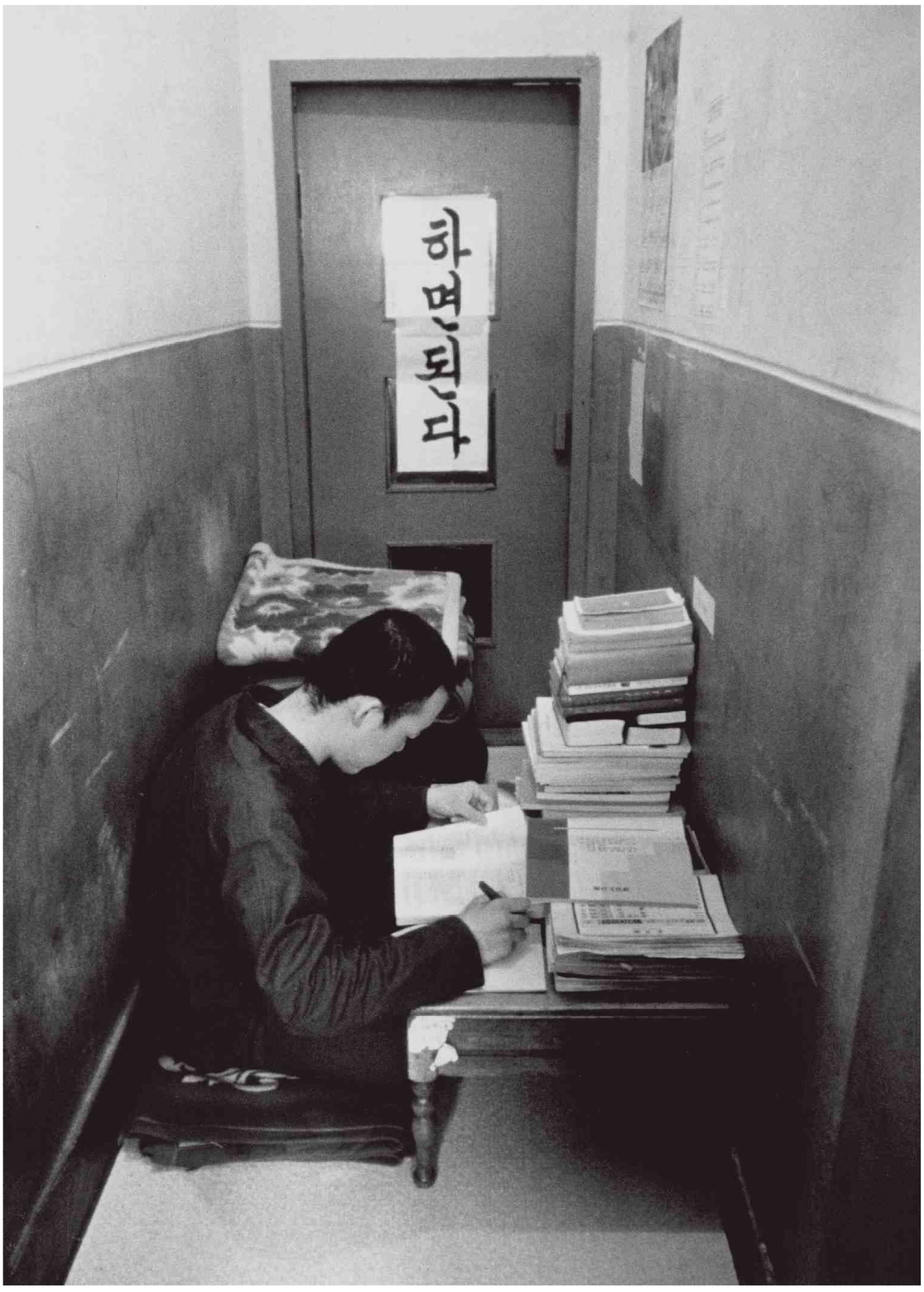
치과의사
Dentist
서울 송파 2006.11.18.

이발사
Barber
충남 천안 2006.03.29.

시계수리공
Watchmaker
서울 소공동 2006.03.07.

여공
Female factory worker
전북 익산 1986.10.30.

상인
Dealer
서울 송파 농수산물시장 2007.03.03.



수감자
Prisoner
서울 영등포구치소 1985.11.10.

부모
Parents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1984.06.06.

전민조의 사진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사진은 최고 권력자들의 모습에서부터 사건·사고 현장 그리고 서민의 일상에 이르기까지의 세상만사를 담고 있다. 일견 산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사진 한 장 한 장은 우리의 역사와 세상사를 함축하고 있다.

산업화에서 소외된 군상의 가난과 슬픔, 사건과 사고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공포와 불안, 정계, 재계, 문화계 인사의 집념이나 허위의식 등을 전민조는 사진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보도사진계에서 30여 년간 활동한 그답게 신문사 편집국의 풍경도 빼놓지 않고 사진으로 그려 놓고 있다.

글·이규상

유머가 없던 시대의 유머 사진

전민조 사진에 대해

이영준 (사진평론가,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에 대해 글 쓰면서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다”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이 말의 오류는 역사가 저기 있어서 사진이 그걸 찍는다고 생각한 데 있다. 역사란 기록하기를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다. 역사는 기록 행위와 더불어 매순간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다. 역사란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사진 한 장 한 장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순간이 역사다.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씨앗이라고 말 하고 싶다. 사진으로부터 시간의 작은 싹이 자라 나와서 역사가 된다. 그것이 어떤 역사가 될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라지만 역사는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는다. 역사는 수많은 논쟁과 투쟁을 거쳐서 꼴을 바꿔가면서 자란다. 사진은 순간을 고정시킬 수 있는 시간의 방부제 노릇은 할지언정 역사를 지어낼 능력은 없다.

전민조의 사진을 말하기 전에 사진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 늘어놓는 이유는 그의 사진이 싸구려 역사관에 장식물로 동원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사진이 역사를 증언한다”고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이다. 사진은 역사에 보태거나 거스르거나 지울 뿐이다. 우리가 그 제스처들을 ‘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 혼란스럽지 않게 못 박자고 하지만 역사에 여러 겹과 켜가 있는 것이 더 흥미롭지 않은가?

전민조가 사진을 찍던 1970년대를 나도 살아봐서 그때의 분위기를 안다. 한 마디로 살벌한 시대였다. 술집에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정보기관에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고문 당한다는 소문이 흉흉했었다. 군사독재 시대의 독재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해 독재를 부렸고 폭력을 휘둘렀다. 휴가 나온 해병대나 특전사 군인은 무조건 피해야 했고, 종로 1가에서 여러 명의 수도경비사령부 군인들이 방위병이 경례 안 한다고 마음 놓고 두드려 패도

최루탄 도시 City attacked with tear g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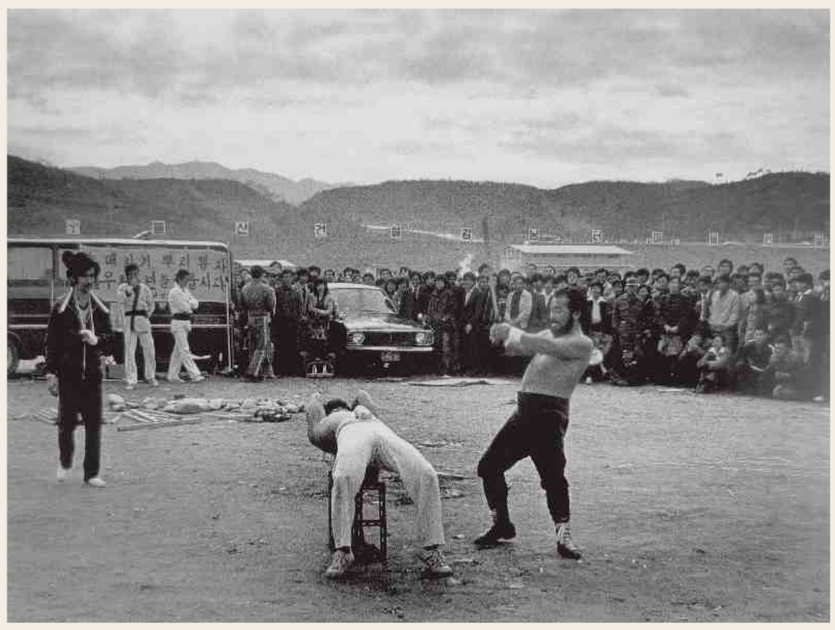
추수 Harvest

지나가는 행인 누구도 참견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그 살벌한 시절에 유머 감각이라고는 없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찍은 전민조의 사진에는 유머가 넘친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찍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민조의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역사를 거스른 어떤 것이었다. 혹은 역사의 블랙홀을 찍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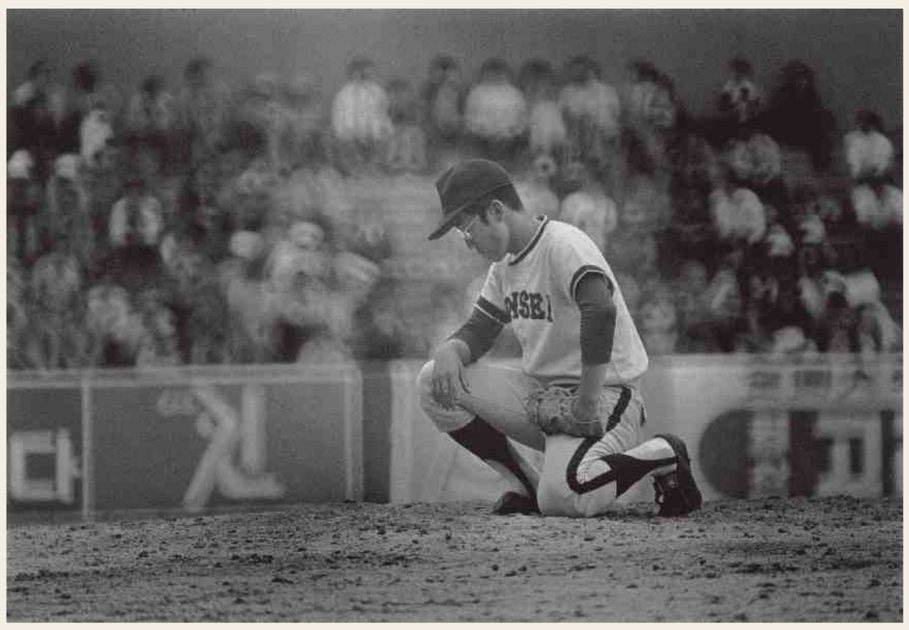
롤랑 바르트는 사진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찌르듯 다가오는 지점을 풍크툼이라고 했다. 갑자기 누가 옆구리를 푹 찌르며 쟤려 보면 뭐라 할 말이 막히는데 풍크툼이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표상도 해석도 불가능한 블랙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진에서 풍크툼이 유별나게 다가오는 이유는 대개 사진에 보이는 것들은 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진은 그 속에 나오는 것을 동일시 하는 맛에 본다. 저것은 사람이고 저것은 하이에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일시는 주체와 이미지가 관계 맺는 아주 단단한 끈이다. 그런데 풍크툼은 동일시를 하지 못하게 한다. 보는 이의 눈은 정박지를 찾지 못하고 도대체 식별의 등급을 어디에 둬야 할지, 동일시가 안 되는 나 자신은 도대체 누구인지 총체적인 혼란에 빠진다.

전민조의 사진에서는 그런 지점들이 습격하듯이 나타난다. 〈최루탄 도시〉는 1980년대 익숙하던 길거리의 시위 풍경이다. 전민조는 취재현장에서 다른 사진기자들을 많이 찍었는데 먹이를 노리는 그들의 눈과 몸동작은 흥미로운 피사체이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을 때 눈만 집중하면 되는데 온몸이 다 긴장해 있는 모습은 사진이 눈의 예술이 아니라 신체예술임을 말해준다.

최루탄과 돌이 날아드는 시위현장에서 양복 정장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진기자, 저 멀리 익산 미륵사지탑이 별거



약장수 Medicine hawker



야구선수 최동원 Baseball player Choi Dongwon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도리깨질 하는 농부, 뒤에는 '울산건설강남터미널건설'이라는 글씨가 있고 앞에서는 레슬링 선수 복장의 차력사가 사람 배 위에 놓인 돌을 칼로 내리치려 하고 있다. 무쇠팔을 자랑하던 연세대학교 투수 최동원. 그가 왜 서울운동장 마운드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53세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서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구멍을 냈다. 1971년 김정섭, 김예섭, 김기섭 형제들은 히말라야 마나슬루 원정에 나선다. 모 언론사에서 그들의 장도를 축하하기 위해 열어준 환송회에는 너무나 빈곤한 땅콩 몇 개가 전부다. 이 사진 속 산악인 중 셋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밀도 있는 시간의 두께를 헤치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들 그때의 일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것인가. 사진은 명징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일어난 일들은 불가사의 투성이다. 여기서 전민조의 사진이 역사의 기록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나온다. 도대체 사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진들을 역사에 편입시킬 수 있는지 판단한단 말인가.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다"는 말은 사진과 역사를 다 알량하게 보고 하는 말이다.

전민조가 사진 찍은 시대는 유머도 없던 척박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전민조의 존재로 인해 그 시대의 의미는 바뀐다. 전민조는 그 시대에 유머 넘치는 사진이라는 켜를 하나 얹는다. 그 덕에 1970, 80년대는 유머의 시대가 됐다. 오로지 전민조의 노력으로 말이다. 침소봉대인지 모르나, 전민조는 자신의 사진으로 시대 하나를 따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억하는 시대와 다른 시대가 그의 사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또 한 번,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다.

마지막 건배 The last toast

압구정동 Apgujeong-dong

작가소개

전민조 田敏照 Jun Mincho

일본 출생(1944~). 서라벌예술대학 사진과를 졸업하고, 여원사, 한국일보, 동아일보 사진기자로 활동하였다. 좋은 사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 사진의 테마라고 생각하는 사진가이다. '사진은 곧 역사이며 모든 예술은 사진을 이용하지 않고는 예술이 완성되지 않는다' 고 말한다.
개인전은 〈담배 피우는 사연〉(토포하우스, 2010), 〈기자가 본 기자〉(아트비트, 2008), 〈한국인의 초상〉(한미사진미술관, 2007), 〈서울〉(김영섭사진, 2006), 〈그때 그 사진 한 장〉 (하우아트화랑, 2001) 등이 있으며, 그룹전은 〈한국 현대사진 60년〉(국립현대미술관, 2008), 〈광복 60년 시대와 사람들〉 (문예진흥원, 2005) 등에 출품하였다.
사진집으로는 『손에 대한 명상』(눈빛, 2014), 『농부』(평민사, 2009), 『기자가 바라본 기자』(대가, 2008), 『한국인의 초상』(눈빛, 2007),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섬』(눈빛, 2005) 등이 있다.

개인전

연도	전시명	장소	
2010	담배피는 사연	토포하우스	서울
2008	기자가 본 기자	아트비트 화랑	서울
2007	한국인의 초상	한미사진미술관	서울
2006	서울	김영섭사진화랑	서울
2005	섬	김영섭사진화랑	서울
2001	그때 그 사진 한 장	하우아트 화랑	서울
1985	얼굴	출판화랑	서울
1979	머킨리사진전	미도파 화랑	서울
1967	월남스케치전	커피하우스	인천

그룹전

연도	전시명	장소	
2008	한국현대사진 6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05	광복 60년 시대와 사람들	문예진흥원	서울
2002	현대사진작가 초대전	동강사진박물관	영월
2001	상처와 치유	예술의전당	서울
1999	한국사진작가 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8	현대사진작가 초대전	예술의전당	서울

사진집

연도	책 제목	출판사
2014	손에 대한 명상	눈빛
2013	특종 역사를 말하는 사진	눈빛
2010	담배피는 사연	대가
2009	농부	평민사
2008	기자가 본 기자	대가
2007	한국인의 초상	눈빛
2006	서울	눈빛
2005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섬	눈빛
2001	그때 그 사진 한장	눈빛
1992	서울스케치	눈빛
1985	얼굴	평민사

저서

연도	책 제목	출판사
2009	사진이 모두 말해주었다	포토넷
2007	사진이야기	눈빛
1999	가짜사진 트릭사진	행림
1994	이 한장의 사진	행림